【一】 第五千六百四十三號 (昭和七年十一月十五日 第三種郵便物認可)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十二年二月一日 (月曜日) (第二版) (日刊)

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反蘇陰謀事件

被告十三名에 또死刑

一

昨年八月二十四日 蘇聯邦最高法院軍事部는 反蘇테로陰謀事件에 連座하엿든 지노비에프 카메네프等 十六名에 死刑判決을 言渡하야 世人의 耳目을 聳然케하엿거니와 其後半年이 채經過치못한 再昨二十九日에는 그의 連累者로 爾來 峻烈한 取調를 밧고잇든 피야타코프前重工業人民委員部次長外 十三名에對하야 死刑判決을 言渡하고 其他蘇聯言論界의重鎭 라데크 前外務人民委員部次長 소코르니코프等 三名에게 十個年의 禁錮刑을 言渡하엿다。이것으로한동안蘇聯邦內部뿐만안이라 全世界에 異常한센세이슌을 惹起하고잇든該事件은 前後二回에 亘한 大量의 死刑判決로 最後의 幕을닷치게되엿스며 따라蘇聯의 黨及政府指導部은 이것으로써 反對勢力을 完全히 肅淸하게되엿다고볼것이다。

二

今回의 事件에잇서 特히 吾人의 注目을 惹起하는것은 첫재로 該事件의 中心人物이 依然 反스탈린派의巨頭 트로츠키라는것과 둘재로 該事件의 連累者가 過去十餘年間 所謂 幹部派와 對立的存在를 持續하여 오든 지노비에프 카메네프等所謂反幹部派를 筆頭로 톰스키 부하린 루이코프等 右翼의 一派 其他라데크 세레부리야코프 소코르니코프等 스탈린政權에 對한 反對派의 諸徒流가 大同團結한一點과 그들로 그戰術에잇서 從來의反黨運動形態를 變更하고 直接 테로手段에依한 鬪爭方法을 採擇한것等이다。卽트로츠키는 海外로 轉轉하면서도 依然初志를 放棄치안코 蘇聯內에 反스탈린의 各派勢力을 慫慂하야 反幹테로團을 結成케하는一方 스사로 蘇聯政府及黨의 中心人物을 暗殺하기爲하야 끈님업시 刺客을 보내엿든것이다

三

트로츠키一派의 反幹部 反革命運動의 歷史는 그淵源이 자못오래다。昨秋公廷에서 陳述한 카메네프의 말과가티 그들은 過去十餘年間 黨及政府、個人的으로는 스탈린에 對한 抗爭을 執拗히 繼續하다가 反幹部陰謀嫌疑로 屢次黨에서 除名處分까지 當하엿고 더욱 復黨의 恩典까지 입고도 始終一貫하게 反革命運動을 斷念치아니하엿다。그리하야 때로는 黨指導部의 分裂을 劃策하엿고 때로는 루이코프、부하린、톰스키等 右翼派에게도 策動하엿든것이다。그러나 스탈린을 首班으로한 幹部派의 陣營은 事件이잇슬때마다 一層 鞏固의 度를 加하는反面에 反對派는 漸次 指導部로부터 차침失脚을 不得已하게되엿다。乃終에는 五個年計劃의 中心課題인 콜호즈化와 工業化의 困難한 政策을 遂行하는 指導部의 失脚까지 希望하엿스나 그亦失敗로 돌라가고 그리고 大衆의 信賴조차 喪失하게 되엿다。여기서 政治的土臺를 일흔 그들에게는 오직「個人的테로」以外에는 何等 方途가 업섯든것이다。

四

十月革命의 功勞者요 사베ー트文化建設에 燦爛한 足跡을남긴 그들이 對內對外的으로 重大時局에 直面하여잇는 此際 反蘇테로라는 罪名으로 極刑을밧게된것은 一面 사베ー트政權에 對해서는 重大不祥事件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나치스獨逸을 中心으로 西歐팟쇼諸國의 反蘇陣營이 急進한 템포로 進展됨에 따라 蘇聯外交가 重大危機에 直面하게된 實情과 第二次 五個年計劃을 遂行하기爲하야 國內結束을 必要條件으로하는 蘇聯當局의 立場으로 볼때에는 實로不得已한 措置라고도볼것이다。더욱 傳하는바에依하면 今回의 事件背面에는 獨逸의「秘密國家警察」과 連絡한 痕跡이 잇다한즉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하면 今後蘇聯의 對外政策에 잇서서도 重大事實이 될것으로 注目된다。卽 前後二回에 亘한 테로陰謀事件의 摘發과 이에 連座한 反對派의 모든徒黨을 一網打盡하기에 成功한 스탈린政權은 一層 그地位를 强化케한 感을주는同時에 對外的으로 西歐의 國際팟쇼陣營에對한 蘇聯의 決意를表明하는것으로도 解釋된다。

後任陸海相候補者 兩者間意見不一致

林大將은、陸相에 坂垣中將을希望

組閣에 또一抹의暗雲

【東京電話同盟】林大將은 三十一日午前寺內 永野兩相을 訪問하고 後任軍部兩相의 推薦을 要望한데 對하야 寺內陸相은 現教育總監本部長 中村孝太郎中將을 推薦하고 永野海相도 候補를 推薦하엿스나 林大將은 後任陸相에는 關東軍參謀長 板垣征四郎中將을 意中의 人物로되엿든것과 永野海相이 推薦한 後任海相과 組閣本部에서 希望하는 末次大將과 一致되지안홈으로 다시雙方이考慮하기로되엿다 이때부터 軍部兩相의 決定難으로 今日中에 陸海軍側과 組閣側과 意見一致될는지 疑問視된다

그리고組閣本部에서는 陸海軍兩相의 銓考를뒤로돌리고 他文官閣僚의 銓衡을 進捗함이如何한가에 對하여도 目下協議中으로 아직 何等의決定을보지못한 模樣이다

【東京電話同盟】十河信二氏는 三十一日午後零時十五分左와如히發表하엿다 陸軍大臣、海軍大臣이다 이쪽과 저쪽의 意見이 一致못되여 아죽決定못되엿다 勿論意見이 一致되지안흔것은 候補者의 問題이다 陸海軍側에對하야 再考를 求하고 이곳에서도 再考할터이다 陸軍大臣이決定되지안흐면 他의閣僚와 銓衡을 開始할는지 엇절는지는 想像에 맛긴다 다만 陸海軍側의 回答에 接하여슴뿐임으로即時銓考對策을 討議할터이나 此際 林大將이 再次寺內、永野兩相을 訪問할豫定이다 組閣이完成될는지 其豫想은 陸海軍의回答이 왓슬때 따름임으로 무엇이라고말할수업다

中村孝太郎中將을 新陸相으로推薦

三長官會議에서 愼重考慮結果

【東京電話同盟】寺內陸相은 卅一日 林大將에게 後任陸相으로 現教育總監部本部長 中村孝太郎中將을 推薦하엿다

【東京電話同盟】寺內大將은 林大將과會見한後 左와如히말하엿다

本日 林大將의訪問을바더 組閣大命을拜受한데對한 말이잇섯고 다음에 後任陸相을 推薦하기바란다는 申請이잇섯다 自己는 昨日午前十一時半부터 三長官會議에서 愼重審議한結果에基하야 中村孝太郎中將을 後任陸相에 推薦하기로決定한 旨를言述하엿다 이에對하야 林大將은 御考慮하는 模樣이다

林大將陸海相에 後任推薦을懇請

【東京電話同盟】組閣大命을拜受하고 滿一日을 內面的準備工作에 許費한 林大將은 마침내積極的組閣工作에進出하야 三十一日午前九時四十五分 爲先 陸相官邸에寺內陸相을訪問하고 今回不慮에 組閣大命을拜受하고 恐懼하고잇다 그러나內外의時局이極히 重大함으로 微力이나마 最善을다하야 組閣에 着手하기로되엿다 全陸軍支持下에 重要國策遂行에當하려한다고組閣의根本方針을表示하고 後任陸相推薦을 正式으로要請하엿다 右에對하야寺內陸相은 三長官意見一致下에 敎育總監部本部長 中村孝太郎中將을 推薦한다 이에對하야林大將은 意中의人物을示하고 推薦方을求하야 兩者에서再考하기로하고 同十時五十分 陸相官邸를 辭去한後 卽時 海相官邸에 永野海相을 訪問하고 同樣으로 組閣에 着手한旨를 述한後 海軍의支持를 懇請하고 後任海相推薦을 要請하엿다 이에對하야 永野海相은 無條約第一年에 對處할 海軍의既定方針及 海軍으로서의 國防充實計畫의 內容을 說明하고 다시 後任海相에 關하여는 아직 아모것도 決定치못하엿슴으로 可及的速히 部內의意見을 綜合하야 回答하겟다는旨를 述한바 林大將은 이를 諒解하고 海相官邸를 辭去하야 同十一時十五分 組閣本部에 歸還하엿다

時局認識에對하야 政黨도大勢順應

陸軍의議會解散論은既成政黨撲滅이目的

新黨問題擡頭는必至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이 成立되면 第一로 具體化되리라고豫想되는 議會開會問題에 關하야는 現今 銓考中인 組閣方策에 잇서 陸海軍의 意向이 어떤程度로 採擇되는가 또內務大臣에 何人이 起用되는가에 依하야明瞭하게 될것이나 目下의 形勢로는 既成政黨撲滅을 主張하는 陸軍側의 解散論에對하야 海軍에서는 非常時豫算의 成立을熱望하고 잇슴으로 政、民兩黨衆議院各派는 이點에 重大關心을 拂하고잇다 卽 廣田內閣總辭職及 宇垣內閣의 流產에 依하야 政黨側의 時局認識은 顯著히轉換되여 大勢順應의 空氣가 瀰漫되어 現在 組閣途上의 林內閣에 對하야 純理論的態度를 決定치못하고 政民兩黨이 모다 首鼠兩端을 持하야 靜觀을 繼續하고잇는狀態이다 그리고 組閣의 方針은 一、政黨에서 全然閣僚를取하지 안흘가 一、閣僚로서 入閣할際는그離黨을 求할것인가

兩者中 하나라도 보이는때 어떠한境遇에나 政民兩黨은 모다 이에 反對하야 純野黨的態度를 取하기는 困難하리라고 된다 그러나 政府의 方針이 解散斷行으로 기우러질 境遇에는 政黨으로 還軍義에 强하게 잇서 反政黨的決意를 蓄固히하고 또政民兩黨에서 入閣者를 求한然後에 解散을行할境遇에는 入閣關係가 이러나리라고 觀測된다 따라解散論은 政黨의對政府態度及政黨人의 時局認識을 表示하는重大案件으로 組閣進捗과아울러重大關心을 끌게되엿다

베條約의最後鐵鎖 大戰責任論破棄

獨鐵道銀行의 主權回復宣言

히總統、또爆彈宣言

【伯林三十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三十日午後一時부터 獨逸國會에出席하야 一、獨逸鐵道及 獨逸國立銀行을 獨逸國主權下에 排他的으로 歸屬케하기爲하야 베르사이유條約의 當該條項을 廢棄할것 一、大戰責任條項에 對한 調印을 取消할것을宣言하엿다 大戰後 十餘年間 歐洲政局을支配한 所謂베르사이유體制의 最後鐵鎖라할 베르사이유條約 第二百三十一條에는 世界大戰이 獨逸國及 其同盟國의 攻擊에依하야 發生하엿다는旨를 明示하엿다 戰爭에 依한 一切의損失及 損害에 對하여는 其責任을 獨逸國에歸屬시키기로斷定하야 大戰의 眞因을 獨逸軍의 白耳義 中立侵犯에 歸屬식히는것은 皮相的見解임을 免치못할것이다 所謂大戰責任論을中心으로 戰後國際法學的으로 異常한論爭이 展開된 베르사이유條約中第八編賠償條項은 一九三二年六月로잔느會議의 結果 所謂天文學的數字가 事實上 抛棄되여 公文으로 歸하고 第五編의 軍事條項 第四十二條라인非武裝條項 第三百三十一條以下四一國際河川條項等은 次第로 獨逸政府의 一方的破棄로서 休紙로歸하엿는데 責任條項이 存續하는限 獨逸政府는 戰敗國으로 大戰의 處理에 專念할수박게업섯스나 이제로 히틀러總統이 베르사이유條約最後癌腫에 對하야 摘出의 메쓰를 加하엿기때문에 玆에 베르사이유條約은 領土條項을除하고 거이完全淸算되엿다 더옥英佛兩國을 비롯하야 舊聯合國側이 以上의 一方的宣言을 卽時承認할는지 안할는지는 豫斷할수업다 히틀러總統은 大戰의 殘滓를 脫却하야 所謂前提六個條를 提示하야 마침내 政府政局의 全面的再建設에 進出한것으로推測된다 (사진은 히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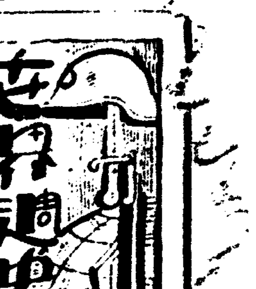
偉業을自畫自讚

獨國會에서히總統演說

【伯林三十日發同盟】나치스國民革命四周年에當하야 히틀러總統은 크로르오페라에서 開會되는國會에出席하야 六百의 나치스議員아페서 國民革命의 業績을回顧하면서 左와如히述하엿다 나치스는 거이鮮血을 보지안코 國民革命의偉業을 成就하엿다 獨逸民衆은 有史以來의一大革命을 最少限度의 犧牲으로 實現하엿다 世人은입으로 民主主義와 獨裁主義의 優劣을論하나 나치스革命은 最善意味에잇서 民主主義 그것이라는것을 認識치못한다 나치스革命의結果로 第一은 獨逸國內에는 人民이 主權의擁護로 確立되게되엿다 第二에나치스黨은 人民의 意思를表明하는 人民의 政治的組織으로 되엿다 第三에나치스黨은 唯一한立法機關으로 되엿고 第四에 唯一한執行機力으로되엿다

國民復興의 가장 顯著한曙光은 經濟復興四個年計畫이다 그러나 財政上幾多의 成果를今後에 確保함에는 全國民에對한 政治教育이 喫緊한 急務이다 히틀러 總統은 外交關係에 言及하야曰 外交關係의 業績은 나치스黨最大의 業績으로 벨사이유條約中 獨逸國民에 對한 差別的條項은 마침내 破棄되엿다는것을 玆에宣言한다 獨逸政府는 世界大戰의 結果 베르사이유條約 第二百三十一條에依하야 大戰의 責任『獨逸及其同盟國』에 歸屬한다는旨의宣言의 强要를바더든當時 獨逸國民은 戰後疲弊가 極度에 達하여섯슴으로 右宣言을 그대로承認하엿든것이다

余는 玆에大戰의責任에對하야 獨逸政府의 責任調印을 正式으로撤回한다 今後獨逸政府는 國家로서의 均等한地位를 確保하고 歐洲政局에 對한 自國의使命을自覺하고 諸懸案解決에忠實히 協力할것이다 最近 日本과 反콤인테른協約을締結한事實에 徵하드라도 獨逸國民이 孤立을要求치안는것은 明瞭하지안흔가 此際 特히 獨佛兩國間에는何等紛爭이업다는것을 玆에宣言한다 最後에 히틀러總統은 植民地의 必要를 强調하야曰 일즉獨逸國民은 何等他國에 困惑을 주지안코 國際公約에도 違反하지안코 植民地帝國을建設하엿다 그러나 此等 植民地는 奪取되엿다 何故로獨逸國民은 其植民地를 强奪되엿는가 其理由는 誰도 解明할수업다 獨逸의 國內人口가 極度로稠密한事實에徵하드라도 植民地에對한獨逸國民의 要求는 實로無理하지 안타고 確信한다 現下 歐洲政局의 緊迫을 打開함에는 其前提條件으로 爲先第一에 各國民이 各其國內安定을 確立하고 國內秩序를 維持하지안흐면 안된다 第二에 他國의 絶對的所要는 相互考慮斟酌하지안흐면 안될것이며 第三에 國際聯盟을 改組하고 第四에 各國에 對하야 絶對的地位를 確保하고 第五에 全局的見地에서 軍備制限案을 提唱하고 第六에 無制限한 國際煽動策을 退治하야 組織的으로 國際雰圍氣를混亂하는 風說을 撲滅함이 必要하다 最後에 世界今日의險惡한情勢를 緩和함에는 小數民族問題도 同時에解決하지안흐면안된다고絶叫하야 歷史的獅子吼를行하엿다



宇垣氏大命拜受로부터拜辭까지

廣田內閣이 總辭職한後 二十四日大命은 宇垣大將에 降下되엿다 이結果 宇垣大將은 二十五日午前一時 宮中에 參內하야 大命을 拜受하엿스나 이와前後하야 開催된 陸軍首腦部會議는 宇垣大將을 首班으로한內閣成立은 肅軍徹底와 部內統制上反對이며 또宇垣大將은 現狀維持派의人物이라는 理由로도 反對를表明하야 陸相을안보내기로決定한結果 宇垣內閣은 大命拜受直後 難航으로 에서 不斷히 折衝의길을發見하기에 努力하다가 드듸여 陸軍의態度緩和가 奏功치못하여 二十九日午前十一時 宇垣大將은 宮中에參內하여 組閣의 大命을 拜辭에이르럿다 이 流產陣痛中의五日間의 重要經過를 摘記하면 다음과갓다

▲二十五日午後四時 宇垣大將은 陸相官邸에서 寺內陸相과 會見하고 約四十分間 組閣方針及政綱政策의 大綱을 披瀝하고 다시 後任陸相의推薦을 懇請하고 後 永野海相과 會見하야 後任海相의 推薦을 懇請하엿다

▲二十六日 午前十一時 杉山教育總監은 組閣本部에 宇垣大將을 訪問하여 陸軍部內의情勢를 說明하야 組閣을斷念하도록 勸告하엿다

同日 午後 四時四十分 寺內陸相은 宇垣大將을 訪問하고『陸軍三長官이 愼重히 考慮한結果 推薦한 三名의候補者는모다 辭退하엿다』는 旨를 回答하야 婉曲히 後任陸相推薦을 拒絶하엿다

▲二十七日 午前十一時十分 宇垣大將은 宮中에 參內하야 內大臣府에서 湯淺 宮相과會見하야 組閣工作의 經過를報告하엿다

▲二十八日 午前十一時五十分 今井田淸德氏는 寺內陸相을訪問하야 宇垣大將과 陸軍三長官이 會見하여 懇談할機會를 주도록 要請하엿는데 寺內陸相은 그無用한일임을 說明하야 이에應하지 아니하엿다

▲二十九日 午前十一時五十分 宇垣大將은 組閣決意를 斷念하고 宮中에參內하여 組閣大命을 拜辭하엿다

林銑十郎大將에大命降下

時局을 御軫念하압시는 聖上陛下께압서는 後繼內閣에對하야 거듭 西園寺公에 御下問을 賜하압시사 二十九日即時 湯淺內府를 興津坐漁莊에 御差遣하압시엿다 이結果 西公은 第一候補에 平沼騏一郎男、第二候補에 林銑十郎大將을 奉答하엿는데 平沼男은 固辭하기때문에 드듸어 大命은 林大將에게 降下되엿다 따라林大將은 二十九日午後十一時二十七分宮中에 參內하야 後繼內閣組織을 拜受하고 即時組閣에着手하엿다

南總督海州到着

卅一日午後九時五十分京城驛着

多端한 政總도나는모르는듯이 西朝鮮一帶를 巡視中인南總督은 平安南北兩道의視察을 終了하고 三十日午前九時鎭南浦에서 碎氷船鎭南丸으로 黃海道猪島를 視察한後 다시自動車로 載寧安岳兩郡을거쳐 海州로向하얏다 官民學生堵列歡迎裡到着、即時道廳으로드러가서 要員에게 一場의 訓示를한後 往屋旅館에 投宿하얏다 三十一日은 海州龍塘浦築港其他海州名勝을 視察하고 午後四時四十五分海州驛發列車로 一路歸任의途에 就하얏는데 京城驛着은午後九時五十分이다

杉山教育總監 陸相官邸訪問

【東京電話同盟】杉山教育總監은 三十一日午前十時四十分陸相官邸에 林大將 寺內陸相을 訪問하고 要談하엿다

林大將에對해 佛紙好感

【巴里三十日發同盟】林大將에對한 組閣의 大命降下에 關聯하야 陸軍當局이 三十日當局談을 發表하야 獨裁政治를 樹立할意圖가업다는 旨를聲明한것은 巴里政界에 好感을 興하엿다 林大將은 日本軍人의 典型으로 結局强力內閣組織에 成功할것이며 新內閣은 軍部와 議會와의 間에建設的 協力을 實現하리라고 期待하고잇다

日曜氣配

▲期米=日本內地는 貨物이잇스나 朝鮮은依然貨物少하야頑强한狀態을 보인다 日本內地는 割安訂正의 轉機를보여 環境高에 押目買人氣

▲株式=不安人氣一掃에 買氣擡頭하야 一齊出直步調目先强合脫模樣

大新	九二、○○
新東	一五四、三○
鐘新	一三八、○○
日產	八六、○○

八面鋒

京城府民으로 子女를 普通學校에 보내라면 京城府나 町總代집에가 入學願書를 어더다가

◇

願書를 써서 京城府 又는 出張所 戶籍係의 對照를 마다가지고 學務課 又는 出張所에 提出한다고。

◇

그런데 接受期間이 元府內는 一日間 出張所管內는 四日間으로 되어잇서 그日字를 드티면 受驗도 不許。

◇

入學願書를 學校에 안코 府나 出張所에 提出케함이 諸案한 일이어니와

◇

京城府나 出張所에서 取扱한다면 왜 臨時增員을 해서라도 일을 圓滑히 못하는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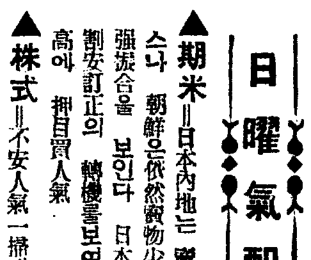
家故가 잇거나 日字를잇거나 戶籍의 錯誤도 接受치는 그 하로에 手續을 못내지 못하면 아주 一年을 쉬어야하니 手續을 까다롭게하야 志願者를 減하게하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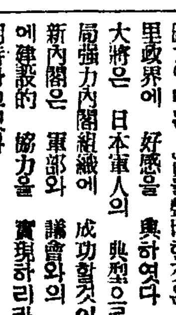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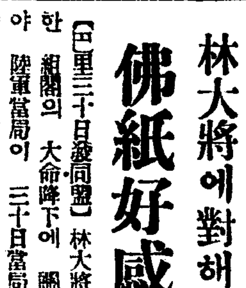
일 조하하는 京城府라 入學願書接受도 마라한다면 人員을 增加해서라도 府民의일을 便하도록 手續日字를 늘이는하함이 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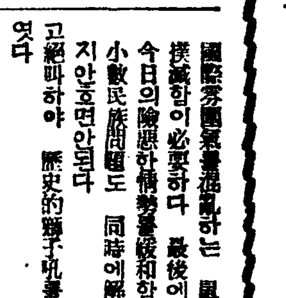
今日本紙四面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テーブル（淘汰盤） 新案二七二四〇號


特許一二二〇二九號 鑛山用發條搗鑛機




クラッシャ（破碎機） 新案三三三二七號 砂金試掘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八三六番 朝鮮鐵工所

都賣 散賣
鑛山用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三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果樹苗木 豫約販賣 定價表進呈 開城府南山町八一九 興林農園本店 振替京城一五〇二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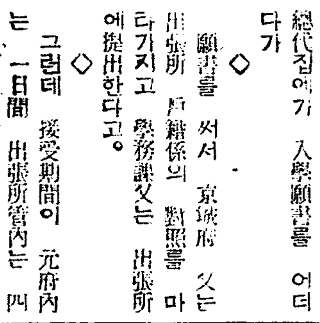
古自働車部分品買入 自動車解體 古銅古鐵 住所 光州府不動町三六 韓吉祥商店

靑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略歷記入藥書申込次第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載寧明新學校生徒募集 一學年男百二十名女六十名 出願男三月二十二日女三月十八日迄 試驗男三月二十四日—二十七日女三月二十九日—三十一日

遞信局海員養成所生徒募集 締切 三月十日 入學案內要二錢郵券 試驗地 京城、平壤、元山、木浦、鎭海

恩給 最大長期分立替 取扱의迅速과信用은斯界의特色 乞照會詳細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分院長資格特別講習

最新最效 物療電醫責任養成 本院總長은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物理最效醫學全科를短期卒業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內務省令近間發令으로前途漸有望 ◎今回는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슴 迷惑치말고배워서生涯成功의길을示하라 內容規則進呈(藥書로申込하라)(申込順으로特典證書附與) 鮮內唯一 朝鮮高等電醫總本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財團法人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京城 第一學年 約百名 出願三月十日限 試驗三月十一、十二、十三日(詳細要照會)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京城 ◇第一學年約百名 ◇出願三月十日限 ◇考査三月十一、十二日 (京城貞洞町三十二)

中央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一、第一學年 約壹百五十名 一、出願期限 三月十五日까지 一、試驗期日 三月二十日부터五日間 (詳細要問本校京城府桂洞町壹番地)

漢城商業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百名 出願 自二月廿五日至三月十五日 入學試驗 自三月廿五日

講習生募集 公認 新義州時計技術講習所 募集人員 五十名 開講二月十五日 新義州府梅枝町八 規則書請求、第送呈(要二錢切手)

黃金町食刀强盜를 蟄伏中에 逮捕(前科二犯 韓者斤先)

犯行動機는 舊歲暮의 困窮으로 西大門署의 敏速한 活動奏効

지난이십구일배주에 오백원의 강탈도주한상인도범인을미칠한활동으로 직각체포하야 버린시내서대문서(西大門署)에서는 삼십일일새벽에는 시내각서가 발금경쟁적으로 수사하고잇는 지난이십팔일 시내 황금정(黃金町)에 나타난 식도강도(食刀强盜)범인을 체포하게되엿다 지난 이십칠일오후아홉시사십오분경에 시내황금정(黃金町)사정목사십번지 약종상 원등희구치(遠藤喜久治)집에 침입하야 현금십칠원을강탈도주한 복면식도강도범인에대하야 소관본정서는 물론시내각서에서 이래맹렬한 수사를 하고잇섯는데 시내서대문서에서도역시 작년부터 해경을짓지못한강도범인이 세건이나잇는니만치 그는내는물론 시내의전과자전부를 총체포하여 조사하여 잇던도중에 나타나서 그범인의 착의용모로부터 단서를잡고 삼십일일오전네시경에 도형사과경전(田) 우생(羽生)량부장등의 응원을어더 그서궁원(宮原)부장이하 형사대가 총출동되여 시내공덕정(孔德町)일백구십칠번지를 습격하야 그집에 살고잇는 절도전과이범의 한자근선(韓者斤先)이를 잡을고잇는것을 꼼짝못하게 체포하엿다

그가입고잇던 착의가 범인과 조금도 틀림업슬뿐더러 취조한결과 범행후 도망갈때에 엎어진것이던지 징용을뛰여 내린것이라던지 범죄일체를 자세하게 자백하게되엿다 전기범인은 작년십일월이십팔일에 사변의 징역을 마치고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를 나온후로 이래생활이 곤난하던터인데 더욱최근구역설을 마지하야 극도로 궁핍하게되여 드듸여 그와가튼 범행을 하게된것이라고한다(사진은 유치장에 끌려드러가는 범인)

상오오 산산히 헤어저도망해버린일이 잇섯는데 그중에오인조(五人組)탈옥수들이 인가업는 벌판인 팔리강자(八里岡子)등지들이 배가고파서 진퇴유곡으로 꼼작할수업시 어려죽게되엿슬때 마침강자돈(岡子屯)에사는 산양꾼인 매영안(梅永安)(三十)이가 록기(鹿)를잡으라고 산양개한마리를데리고오는것을만나 장총으로위협하고 먹을것을내노라고하엿다 매(梅)는먹을것은아모것도가진것이업다고하자 그러면미안하지만 너를잡아먹겟다고 하고 달려드러 살해할라고하니 전기매령안은 놀라서 개를당신들에게도릴터이니 목숨만은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엿다한다 그래서그자들은 그자리에서 개를잡아먹고나서 매령안마저잡아먹을도배일라고하여 엄시산채로 엿스나 도배가고파서 어떤에는 매령안으로 때려고가서 무참하게도 죽이여서 사람의고기를 베어내서불에다 구어서먹은일이 지지난이일에 발견되엿다 전기식인귀(食人鬼)오인조는 그다음 만주군대에체포되여 총살을당하엿다한다

幼兒三名일흔 夫婦의住所判明

기보=지난십팔일에러한화(災禍)로 말미암아 귀여운 어린자식 삼형제를 일시에 일허버린 신당정(新堂町)이백칠십번지 김동호(金東浩)(三十)부부는 실신할뜻이 어린애들의 죽은광경을 보고 저서 어데로인지 방황하고잇스므로 소관동대문서에서는 닷지하는 동정금품을 차저주려고 그의 거처를알고저 고심하고 잇다는데 비극의 주인공 김동호부부는 경원선삼방역의수포원(京元線三防驛前)방에잇다는 모처의 본고기잇섯다

牧島 陶器工場全燒 現場에行中의消防車顚覆(三名重傷)

【釜山電話】삼십일일 오전네시오십오분경에 부산부목도(牧島)에잇는 일본경질도기주식회사(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 공장건조장에서 발화하야 부산경찰서와부산소방조총동원으로 진화에로력하야 동여섯시십분경되여 회사공장사동이백이십구평을 전소하고 진화하엿는데 손해는일만오천원이고 건조기계 일천오백원 상품오백원 합계일만칠천원가량이된다한다 발화원인은 건조기계에 발열을과하하게되여 고열은 맹정건조실의 천장에 인화되여 발화한것으로 급보를접한 부산소방서자동차오십오호는 현장에가는도중 목도(牧島) 본정(本町)전차정류소부근카부지점에서 전복되여 탑승하엿든소방수 광전(廣田)、천정(淺井)、야구(野口)삼명은 중상을입어 부산부립의원에 입원치료중이라한다

釜山澤山組罷業事件 人夫側에凱歌 會社側屈服賃金引上

【釜山】기보 부산부대창정(大倉町)에잇는 주식회사택산형제상회(株式會社澤山兄弟商會)전속인 택산조(澤山組)상용인부(常傭人夫)일백오십명이 약속한임금일할인상을 실시하지안는다고 동맹파업을 하얏다함은 기보한바인데 그후회사측에서는 인부들의 강경한태도에 랑패하야 여러가지로 협의를하던바 지난삼십일아침에 임금일할인상을 즉시실시하겟다고 일하야달나고인부두목을통하야 정식대답을 하야스므로 동일부터 일제히 취업하게되여서 동맹파업은 인부들의 승리로 일단해결되엇다고한다

坑夫二名死傷

【咸興】지난이십칠일정오에 안변군학성면대령광산(安邊郡鶴城面大嶺鑛山) 금항구송통(金坑九松桶)항내에서 큰소리와함께 불발되엿든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야 굴안에서 일하고잇든 항부일명(씨명미상)은 즉사하고 또한명은 빈사의중상을당하얏다

三校一體引繼를 崇專敎授會서支持

分離運動一切排擊等三項決議

【平壤支局電話】지난삼십일밤구시 평양숭실전문학교(平壤崇專)에서는 긴급교수회의(敎授會議)를 열고 문제중에잇는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崇中)숭의녀학교(崇義女校)등삼개학교의 경영문제를 난상협의한 결과 다음과가튼 세가지중 대안건을만장일치로 결의하얏는데 숭실중학교분리경영문제로 분규를 거듭하야 오든이때임으로 이번교수회의의 결의는 실로일반의교나큰 주목을 끌게된다

◇決議

一、우리들은 崇實專門學校、崇實中學校、崇義女學校等三校의 一體更生을期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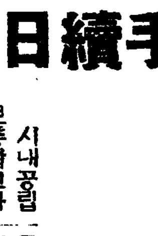
二、目的達成을爲하야 我等은三校一體引繼를 支持함

三、此際分離論은 三校를 全部閉校에 至케하는行爲임으로此를 排擊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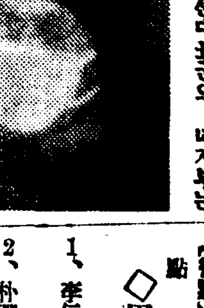
朝滿氷上對抗戰에 朝鮮軍男子部優勝

前半戰은34對29로

【鴨綠江에서本社特派員高鳳梧發電】조선과만주에산재한 수만스케ー터ー들중에서 추리고 추려뽑은 준예들이동원하야 패권을 결하는 제이회조선대만주빙상대항경기대회는 예정과가티 금삼십일일오전열시반부터 조선만주대표선수칠십여명의참석이잇슨후 압록강(鴨綠江)은반우에서 장쾌한막이열리엇다 지난이십오일 취방호(諏訪湖)에서열린 전일본빙상대회에 단신출전하야 제오위를차지한 김기만(金基滿)군을비롯하야 리인원(李仁源)김성규(金聖奎)정경언(鄭庚彦)등의조선군은 작년의설매를 설분(雪憤)코저 의기충천하야잇스며 만주군또한 투지만만하야 벽두에행한 오백메ー돌레ー스로부터 아기자기한 접전을연하고잇다 조선여자빙상계를 대표하야 출전한 손인실(孫仁實)양의 분투하는양은 더욱 이채를 띄우고잇다 이날석간까지의 전적은 별항과가트며 기온은 령하팔도칠、풍속은 북풍사메ー돌 사람이잇서가지 다룬 제도가 『컨디순』은 자못양호한편이나 어름이 잘어러 스피ー드낼기에는 조호편이다 이날 조선대표군의 녀자부는 부진상태이엿스나 남자선수들의 활약은 맹렬하야 오천미경주에 리인원(李仁源)군은 대회신기록으로 일착을 차지하야조선군으로하야금 휘기를 도아 주엇스며 련두어 제이착도 김기만(金基滿)군이 차지하야 오해미래ー스에 분패를 이정기에서 최중하니 박정(朴淳)에잇서 조선군은 삼십사대이십구로써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엿다



李仁源君



金基滿君

◇男子五百米 (세파레ー트러ー스)

1、朴潤哲(撫順)四六秒八
2、三代(同上)四七秒三
3、金基滿(義州)四七秒六
4、李仁源(平壤)四八秒
5、金聖奎(安州)四九秒
6、阿部(奉天)四九秒二

【得點】滿洲十二點、朝鮮九點

(備考)男子五百米레ー스는 第二組競行한바 役員의不注意로 決勝點을 잘못하야 다시始作하엿다

◇女子三千米 (오픈코ー스)

1江藤(奉天)六分一九秒四 2壹枝(安東)六分二一秒一 3木谷(奉天) 4今村(同上) 5村山(奉天)

(이레ー스에잇서 朝鮮代表孫仁實孃은 一回째에顚倒되여 드듸어 한바퀴나 떠러젓스나 最後까지 健鬪한바 앗갑게도順位에 들지못하엿다)

【得點】滿洲二十點、朝鮮軍零點

◇男子五千米 (세파레ー트코ー스)

1李仁源(平壤)九分一五秒 (大會新記錄)
2金基滿(義州)九分二〇秒二
3中楠(新京)九分三〇秒五
4金健會(新高)九分四三秒三
5安達(奉天)九分四八秒
6木谷(安東)九分五五秒

【得點】朝鮮軍十四點、滿洲軍七點

◇男子千五百米 (세파레ー트)

1、李仁源(平壤)二分三三秒七 (大會新記錄)
2、朴潤哲(撫順)二分三四秒五
3、金基滿(義州)二分三五秒六
4、三代(撫順)二分三九秒九
5、石塚(同上)二分五〇秒七
6、金聖奎(安州)二分五五秒九

【得點】朝鮮軍十一點、滿洲軍十點

紳士麻雀賭博團 十二名一網捕盡

昨夜和泉町에서現場이發顯

시내 서대문서에 일대신사도박단이 일망타진되엿다

삼십일일 오후열한시경에 시내화천정(和泉町) 일백칠십팔번지 려수영(麗壽永)방에서 버젓한신사가 열두명이나 느러안저 마작도박을 하고잇는것을 서대문서원이 탐지하고 이를 습격하야 모조리 붓잡엇는데 그들은 『레키사쓰』회사원 안택순(安宅淳)벽돌공장 서기 김남수(金南洙)인천 수도과(仁川水道課)서재인(徐在寅)조선주류회사원유진국(劉鎭國)무역상 김성환(金成煥)피혁상 박동근(朴東根)포목상 정영식(鄭英植)등 십이명으로 판돈이백원과마작 골패등은 전부압수하엿다

龜城郡下에 殺人强盜

행인타살코금품강탈도주 容疑者一名引致取調

【新市】일월이십구일오후오시경 귀성군사기면 왕덕동(龜城郡沙器面旺德洞)왕덕령(旺德嶺)에서 돌연히 강도가나타나서 때마침 도야지 장사하는 동군리현면대인동(梨峴面大仁洞)장운관(張雲官)이가 신시(新市)장으로도야지를사려가는것을 돌멩이로 머리를따려 즉사시킨후 금품(額數未詳)을 강탈도주하얏는데 행인이 그의 시체를 발견하고 신시주재소에 보고하야 방금신시주재소에서는 귀성경찰서의 응원을어더서 범인체포에 로력중인데 방금혐의자한명을 체포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하며 시체는 해부한결과 두부를맞아 뇌출혈로사망한것이라한다

鎭南浦商工會서 三大案件要望

【鎭南浦】방금 서조선순회중인 남 총독은 지난 이십구일 오후 네시반 래남하엿는바 진남포 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에서는 상산 회두(象山會頭)의 명의로 아래와가튼 세가지안건을 요망하엿다고한다

一、鎭南浦港灣擴張의件

二、鹽田開渡에關한件

三、工業地帶造成의件

"사람""잡어먹은""이야기"

齊齊哈爾脫獄事件逮捕秘話

【齊齊哈爾】작년십이월 삼십일일에 제제합이(齊齊哈爾)에 돌발한 만주국 륙군감옥(滿洲國陸軍監獄) 파옥 사건은 그후 내금되여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도주하얏든근백명에각가운 죄수들은그후불과며칠난에경찰대들의 「한활동으로전면적 체포를보게되여 모다 총살을하엿다는데 사포티

情況可憐 孤兒男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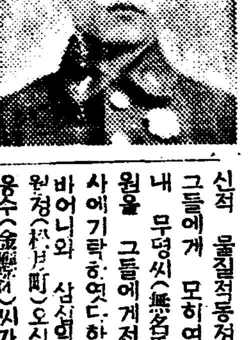
亡親의靈前에 哀呼慟哭

慘禍家庭趙氏遺族訪問記

루보=삼십일새벽 부내명치정(明治町)의아파트에서 일어난화재로 그곳이층에서 살고잇든 조기희(趙耆熙)씨일가족네명이 참혹한 죽엄을하고 그의큰아들과 큰딸 둘만이 남어잇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사랑하는부모와 동생을친네명을 꿈에도 생각지안튼 악마의불길로 말미암아 일시에여이고 갈곳이 고아(孤兒)의서러움을 밧게된 그들남매의 마음이야 오작이나알흐랴! 청천에 벽력가티 떠러진 운명의 악희는 그들에게는 너머나 큰 슬픔이며 너머나 가혹한 묵어운짐이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잇는그의 외숙 부내봉래정(蓬萊町)삼정목 오십칠번지 민원식(閔瑗植)씨댁으로 그들을차즈니 그들은 이미화장에부처 한줌의휘재로변한 부모와 동생의령전에업드리여 읍곤을하여도 다만울고 또울고잇섯다 중원(重元)군은 방금송도고보 일학년에 재학중이고 중옥(重玉)양은 수송공보를 졸업한후몸이약하야 집에서 료양중에이봉변을당한것인데 그들의 각가운 친척으로는 백부와 외숙이잇스나 백부는 생활이 자못곤난하고 외숙역 그다지 생활의여유가적어서 그들의 배움길은 자못암담할뿐이라고한다

同情金遝至

金氏의慰問便紙와同情金 李少年은벙어리寄托



신척 물질적동정은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모히여 삼십일에는부내 무명씨(無名氏)로부터 돈백원을 그들에게전달하여달라고본사에기탁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삼십일일에는 부내송월정(松月町)오십번지의일호 김용수(金鏞洙)씨가 그부모동기를일시에 일흔조군의 마음이 어떠하야 나마 전하여 달라는 간곡한위문편지와 함께 돈오원을 본사에 기탁하여왓스며 부내인사정(仁寺町)이백오십이번지 경성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일학년 리상호(李相鎬)(十)군은 삼십일일 아침에 그가 푼푼히 벙어리에모혀둔돈이원십삼전을 송두리채가지고 본사로차저와서 귀여운목소리로 『불에부모동생을 일흔가엽슨동무에게 전해달라』고 기탁하고가서 이가엽슨 유아두명에대한 동정금은 속속본사에 기탁되고잇는터이다

(사진은 (상)은 고아남매(하)는리소년)

『이애들教育이 問題입니다』

本社寄托의同情金밧고 外叔閔氏感激

무명씨로부터 기탁된백원을전달코저 봉래정삼정목 오십칠번지 민원식(閔瑗植)씨댁으로 조중원군을 차저가니 너머나 마음이 감이 울고만잇는 그들을대신하야 민원식씨가대신바드면서사회의 뜨거운동정에 감사하야 가리말한다

府內各公普 入學手續日割

手續이 느지면 入學이困難타

◇…一般學父兄注意해둘일……

第一日의割當町

시내공립보통학교아동을 가진일반 가정에서 세심의 주의를하지아니하면 수속을밟으로 아동의 입학을못식힐염려가 업지안타 특히금년은 이동업이 ... 것은 부러 여러 ... 되는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아니하면 수속에 비상한 곤난을보게될모양이며 위선 이월일일에 배정된구역은다음과갓다

二月一日 京城市內公立普通學校入學願書受附區域(京城本町署管內)

太平通一丁目 貞洞町 太平通二丁目 西小門町 南大門通四丁目 南大門通五丁目 御成町 吉野町一丁目 吉野町二丁目 古市町 西界町 蓬萊町四丁目 蓬萊町三丁目 蓬萊町二丁目 蓬萊町一丁目 和泉町

(京城府 東部出張所管)

二月一日부터二月四日까지 新堂町 玉水町

天氣豫報

概況 七百七十六粍의高氣壓은 滿洲、朝鮮方面에 擴大하야 日本內地方面의 氣壓은낫고 滿洲及北朝鮮方面은 晴天이며 中部以南은 曇天이다。 그리고 琉球諸島는 大槪曇天인데 비가온다

豫報 今日正明日 大槪曇天이다 京畿全

昨日最高 零下三度九
今朝最低 零下十七度八
今日正午 零下二度二

竊盜잡고보니 意外强盜

【安岳溫泉】지난이십칠일 오후흔시경 안악군 은홍(銀紅)소아방소 소방 수변종찬 라재선(邊宗贊、李在善)외세명은 야경당번으로 동리를 순회하든중 동리평야(平野)씨의집에서 구두한켤레를 절취하여가는것을 체포하여 부근주재소로 인도하엿는데 취조한결과 그는 안악군서하면 복두리장찬도(安岳郡西河面卜斗里張贊道)로이전에 서하면(西河面)강도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하엿 일건서류와함께 안악경찰서로 송하엿다

日本政府特許局登錄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神·不老更少年仙菓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의 效力은이러케 광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 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고 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 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一、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 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진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飯過色 ホルモン不足으로 因한病、性神經衰弱 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소와 오랜淋疾도 消湯됩니다
一、男女老少를 勿論하고 虛弱한분에게는 第一입니다

人生의再逢春

藥價 一劑 特價 二十圓 / 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藥注文送金은 左記三處中 便宜한口座에
一、振替 京城 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六五二番·振替五番

堂々第一·다들수잇는事實

藥業界有史以來百補丸이 最高賣上記錄

그原因은效力斷然第一인까닭!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證明

●朝鮮에서過去 數十年間 여러가지 新舊補藥이續出하야 各處에서 큰廣告도 만히 한일이잇지만은 그 賣上高에 잇서서는 百補丸이 斷然! 朝鮮業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내고잇습니다 이것은 京城西大門郵便局의發送數字가 事實을證明하는바이니 속이려야 속일수업고 疑心하려야 疑心할수업는 堂堂한 事實입니다

●百補丸이 이러케 비빨치듯 만히歡迎밧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第一効力이 卓越하고 第一信用이 큰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貴族、兩班을비롯하야 京鄕各地名士諸氏의 最高賞讚과 推奬愛用을 밧는바이며、萬人이 다투어服用하고 激讚感謝 하는바입니다。

●世上에서 廣告만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크게 낼수가 잇、마는、그卓越한藥効에對하여는 洋의東西와 學博士를勿論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할수업는것입니다。百補丸이 朝鮮에서 第一만히팔리고、第一信用만코、最大의歡迎과 最高의推奬을밧는것은 오즉 百補丸이 補藥界에서 有史以來에 그効力이가장 絶大偉大한까닭이며 廣告가 큰까닭이아닙니다。

●百補丸은 이와가티 効力으로나、信用으로나、賣上으로나、무엇으로나 斷然補藥界에 堂堂第一인것이 속일수업는 事實로서 確定되엿습니다。

이로써 服藥家의 疑心도 一掃되엿습니다

市場移轉問題擴大
面協議員連袂辭任
金晶奎、吳國煥等六氏로서
載寧郡面當局唐慌

【載寧에서海州特派員安德根發】 재령(載寧)군과 면당국에서 일만여시민의 총의와 주위의여론을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얼마전문제중의 집단시장이전을 발표하자 시민이총궐기하야 재령시장의이전은 시민다수의 사활문제라하면 면과군당국을 비롯하야 도당국에 진정을하는등 반대운동을 하고잇다 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 재령면과 군당국에서는 극도로 흥분된 민심을수습키위하야 구력년말까지 이전연기공시(移轉延期公示)를하는등 응급책을써가는외 여러가지"데리케-트"한사정으로 말미암아 표면평온한상태를 뵈여오고잇섯스나 시장이전문제를 싸고도는 경오두룸은 가지가지의 풍설(風說)을비저내고잇드니 지난이십구일오후두시경 면협의원(面協議員)여섯명은 돌연 연명하여 사표를제출하야 더욱 수습할수업는 혼란상태에 빠지고잇서 당국의 당황한빛은물론이요 각방면에 큰쇼크를이르키고잇다

郡面當局勸誘를 六議員이一蹴

재령면당국에서 시장이전불피하려는나머지 거짓결의문을만든 사실이 판명된것을 게기로하야 오국환(吳國煥)씨등 여섯명의면협의원이 연명사표를 제출하엿다함은 별항보도한바와갓거니와 사표가제출되자 재령면장바성주(朴性宙)씨는 아연실색하야 그날오후세시경 군청(郡廳)으로달려가 신군수(申郡守)를방문하고 장시간선후책을강구한결과 우선 사표철회를 권유키로 태도를결정하고 신군수와 바면장은 지난이십구일오후아홉시쯤되여 사표제출한 면협의원들을 읍내료정수양원(修養園)에초빙하야 간담의형식으로 사표철회를 권유하엿는데 면협의원들은 그권유를 일축하엿다 한다

市民大會 警察에서禁止

문제중에잇는 재령시장이전인가에대한 중심적근거가되는 작년팔월십구일에 열니엇든 재령면협의회결의록이 사실과배치되는 허위문서인것이 판명됨을 따라 면협의원 오국환(吳國煥)씨외오명이 사표를 제출하여 이것이 일부재령시민에게 알여지자 그들은 이근거업는 허위문서를사회적으로 규명하고 이허위문서를 중심근거로 한재령시장이전에 대한인가를 파기하기위하야 새로운 대책을 수립코저 지난이십구일오후 구시시내일신조합(日新組合)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려든터인데 경찰당국으로부터 집회금지가 되여 그목적을 달치못하엿다

면협의원의 자격은 상실되여도 시민의자격으로서 시민의리익을 위하여 최후까지 노력하겟다

認可撤回不可 郡守 申益均氏談

면협의원이 연명사표를 제출한사실에 대하여는 면(面)과협의해서 선처하겟다

이번 시장이전을 단행하는데 잇서서 물론 소수리해관계가잇슬것은 인정하나 재녕발전이란 대국적견지에서 본다면 그러케 관계를 초월하야 이전을 단행하는것이 올흘줄안다

더욱이 사활문제운운하고잇스나 작년겨울 그대로두고로천(露店)등이 나오게가는것은 대국적으로보아 큰리해가업는듯하다

이왕 인가된후에 반대운동을 하는것은 시기가느젓스며 더욱이 지금와서 인가철회란 절대불가능하다 운운

載寧面長朴性宙氏談

「이번시장이전문제를 중심으로하야 면협의원여운이 사표를제출한다는것은 어제밤부터 드럿스나 아직 내손에는 도라오지안엇다

어떠튼 사표를 수리하기전에 본인들의 의견을듯고 타협하구하려한다

그러나 당시의 진행사항과결의록과 상위가 잇는지도 알수업스나 그때 참예하엿든 정기남(鄭基南)의원과 함분하 서명인것으로 보아서 절대로 상위업는것으로 인정한다

아모려나 인가된것을 지금와서 철회하기는 불가능하다 철회의사가 잇다하드래도 실행키는 절대로어렵다』운운

移轉案討議하려든 面協議會는流會
面의記錄에만"滿場一致可決"
模糊한認可申請理由

재령면협의원 김정규(金晶奎)김선용(金善鏞)오국환(吳國煥)정두영(鄭斗永)박형석(朴瀅錫)리병근(李炳根)씨등 여섯명은 지난이십구일 오후두시경 이번시장이전문제에 대한책임을 지고면과군당국에 연명하여 인책사표(引責辭表)를 제출하엿는데그리유는 다음과갓다

당국에서는 이시장 이전문제에대하야 면협의원의 협찬을어덧스므로 면민의총의에 따라서 이전결행한것이라고 법리론을 주장하는데 이주장의 중심근거가되는 작년팔월십구일에 열니엿든 재령면협의원회(面協議員會)결의록은 당일의 진행사항과 배치되는터이업는 허위결의록(虛僞決議錄)인것이 요지음 모협의원의 손에적발되엿다

즉다시면 당국으로부터 제출된『載寧市場擴張에 따르는市場敷地로서選定한土地賃借契約의件』의 골자로 볼수잇는 향교(鄕校)소유인 읍내국화리(菊花里)소재대지 사천삼백평을 일개년임대료 평당십오전에 정찬유(鄭讚裕)씨 소유인 기타 화리소재토지 사백십칠평을 평당삼전에 임대(賃貸)하는것에대한 일반협의원의 협찬을 구하엿슬때 김선용(金善鏞)의원의『상자로부터 토지를 비려서 시민에게 빌려준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필요가 업다는반대와 또한 오국환(吳國煥)의원의 (시민으로부터 도로세(道路稅)를 받는수업다는 반대로인하야 마치내 당시의면장 정건유(鄭健裕)씨와새에 리론충돌을 이르켜 필경귀결을짓지못한채 류회되엿든데 면당국에서는 이사실과는 딴판으로만장일치가 결의란 거짓결의록을만드러 도에 인가신청을하야 오늘의 사태를 이르켯슴으로 면당국의 전횡운운를 그러한 면행정에는 참예할수업슴으로 사표를 제출하다는것이다

鄭基南議員과의 一問一答

문제중에잇는 허위결의록에면협의원대표로 서명날인한 정기남(鄭基南)씨를 방문하고 기자는 다음과가튼 문답을하엿다

記者 작년팔월십구일에 열리엇든 면협의회에서 진행된사항과 그결의록에 상위가잇서오는면협의원의 사임까지잇섯는데 그기록에 당신께서 대표로서명하엿다니 그것은 사실이며 그때진행사항과 결의록과는 상위가잇습니까

鄭 서명한것은 사실이나 당시의사항과 결의록의 상위여하는 오른일이라 기억할수업소

記者 그결의록에는 만장일치로 가결된것으로되엿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鄭 오국환(吳國煥)김선용(金善鏞)씨로부터 반대가 잇섯스나 나중에유야무야하게된것가티 생각되오

記者 이번그거짓결의록으로말미암아 다른협의원의사표까지제출되엿는데 이사건의 책임자로 불수잇는당신으로는 책임을늣기지안습니까

鄭 그사임리류가 내생각과는배치되여항유하지 안엇스나 다시다른 협의원들을 만나 협의한후 신중히 선처하겟습니다』운운

專橫的面政에는 參與할수업소
面協議員 金善鏞氏談

우리여섯명의 면협의원이 이번시장이전문제에대한 책임을지고 인책사표를 제출한것은 사실이다

그사표이도 명시되바와 가티 작년팔월십구일에 면협의회가 열엿슬때 면당국으로부터 사장이전을 전제로한 『시장확작에 따르는시장 부지로서 선정한토지대차계약의건』에대하야 협찬을 구하엿슬때오(吳)의원과 본인의 반대로 면장과 충돌이생기여 불성립되엿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된것으로 허위결의록을 꾸며 도에상신했는것이 요지음 적발되엿다

이와가티 사실대로 기록도안해주고 자기(면당국)의 임의대로하야 시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전횡적인 면행정에는 참예할수업는동시에 일반시민을대할 면목이업서 사표를 제출하엿다

면이나 군당국에서 유임을권한다하드라도 절대로 철회치안코 초지를 관철하겟다』운운

面協議員 金晶奎氏談

『군에서 면협의원의 협찬을 어덧다는 법리론의 중심근거가 되는 작년팔월십구일의 면협의

母校의存廢問題를 同窓會열고討議
全州新興學校卒業生들이

【全州】 존폐문제에엿는 전주신흥학교문제에대하야 동교졸업생동창회에서는 지난이십구일오후칠시반에 모교강당에서 동창회를 개최하고 존폐문제의 선처를 협의하엿다는데 협의사항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道當局과및金會에 交涉하야 相互間의 斡旋을할事

二、委員은 白安基、嚴泰燮、申時徹

三、同窓會員은 醫學博士來全時에 歡迎會를開催하고 其席上에서 會見再考할事

◇會見委員—嚴泰燮 白安基 申時徹 金鐘泰

敎員試驗合格者【淸州】

충북도학무과에서는 지난십이월초순경제삼종교원 검정시험을거행하엿는대 지난이십일일 그합격자를 발표하엿다 합격자는다섯명으로서 그씨명은다음과갓다

◇合格者 嚴用鎬 金八福 李長鉉 安壽天 洪淑壽

本山에四人組强盜
擬似拳銃으로威脅코
現金百圓을强奪逃走

【咸興】 구정을압두고 강도사건이빈발하야 물정이소연한 함남도에 또다시강도사건—

지난 이십팔일 오전네시경 갑산군 보헤면(보헤에서 약사십리)김병만(金炳萬)의 집에 뒤스문을 부시고 일당네명의 강도단이 침입하야 권총가튼것을 주인에게 내밀고서 위협하엿다

불시에 잠을깨여 이가튼협박을바든주인은 너무도 무서워서 즉시잇든현금백원을 끄내여주엇드니 이것을 바더가지고 곳 다라나버렷다 이급보를바든 소관해산경찰서에서는 곳비상소집을하야 범인을 엄탐중인데 아직까지도 체포되지못하얏스며 국경지방의 민심을 소란케하엿다

全朝鮮米穀大會
十月二十三四兩日開催確定
道產業部長來木協議

【木浦】 곡창 전남목포에서는금추를 기하야 전조선미곡대회를 개최하리라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이십구일 본도산업부장과 농무과장이 래목하야 부청회의실에서 중전부윤이하 다수 관게자 열석하에 미곡대회에관한 대강을협의하엿는바 동대회의 역원급 예산등에 대하야는 추후로 발표할터인데 개최기일은 시월이십삼 사일 양일간이라고한다

會議場所問題로 組合과當局對峙

【江陵】 년사백만원이상의 생산을 하고잇는 강원도 양유비제조업수산조합 (江原道鰯油肥製造業水產組合)의 명년도 예산회의는 이월초순경 개최될 예정인데 그개최장소에 대하야 감독관청과 조합당국간에 의견의대립이되여잇는사실이 쫄문되엿다

조합당국자는 조합원의 경비부담과 회의의원활을 도모키위하야조합사무소소재지에서 하기로하고 또한 일반총대들도 이것을 지지하고잇는데 감독관청측은 조합소재지에서 이백여리나 떠러저잇는 금강산온정리에다가 개최하라고 종용하는모양이다

그럼으로 별다른것이업고 그돔은 회의의진행을가장하는 의미보나노 일종의 유산기분으로 간단히가기들의 편안을 곤쟁히는모양이라고 하는때 조합편거기원은 울뜨당국의외향을 타진하야 외면하조합당국의 의견을일치하는경우에는 곳까지방하리라고 판정되다 그리고조합원들도 당국자의태도를 심히못맛당히 역이고대기의리드를 갓고잇다고한다

燦然"血書"에繡는"母性愛"
一娼女가薄情郞有名氏의끼친血肉맛나게해달라고
本報新高山支局에와서 斷指로斷腸哀願

【新高山】 오색등을비치 번쩍이는속에서 긴긴밤을 여러사나이들에게 마음업는 추파를 던지며 우울을 팔망정 오직 자기의 혈육을 그리워하고사랑하는 순정만은 누구에게나 못지안흔것이어서 옛날의 정랑이 자기를 창녀로 팔어먹고나서 사랑(?)의열매도 끼친혈육마저 떼리고 여섯해전에 자최를 숨키고만이래 바정한 랑군을 원망하는것은물론 밤낫으로 이처지지 못하는 어린자식을 그리면서 그날그때 문득 생각킬적 마다 『오늘은 밥이나 잘먹고 잘노나? 넉지금은 제동무들과 놀다가 싸홈이나 아니하나? 넉제게모에게 구바이나받지안나?』 등등 속을 태우면서 여섯해라는 긴긴세월을 꿈과가티살어오다가 몽키고 차힌모성에의 쑛발함께 호소할곳을찻다찻다 못해서 본보신고산지국으로 차저와 가엽게도 손가락을 깨무려 가지고 방울방울 흘려떠러지는 붉은피발로

『사랑하는 내아들 귀남이를 차즈려면 어찌해야되오? 살엇는지?죽엇는지?귀보에서 차저주오』 귀남이 우리 귀남이!』하고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정을애원하다가 기절해서 모성애의전폭을 빗나게수놋흔 그어머니가잇다。

이눈물의녀성 한숨의 어머니는 지금신고산암강춘(巖江春)이라는 료리집에 창녀로잇는 홍명옥(洪命玉)(二三)으로 그들오늘과가튼 기구한운명의 구렁으로 유혹해너케한실마리는 여섯해전오늘날로 더드머올라간다

즉 그가열여섯살이라는 세상에대한눈이 채떡을락 말락햇슬당시 그의부모는 읍內죽고 그의오빠와 애정정(愛井町)모처에 살고잇슬때 우연한기회로 원창수(元昌秀)라는 당시스물두살된 철업는 사나이와 서로알게되여 얼굴이 이거지고 정이 얼켜지게되자 자기오빠모르게 사랑을 재절대이다가 그들사이에는 다행을지나처 불행하게도 한씨가 매처젓스니 그것이 이눈물겨운 이야기의시초를 나케한것이엿다

그사랑(?)의 열매되는 애기이름은『귀남(貴男)』성은물론 아버지의그것을 딸하서『원(元)』씨 그후그들은 귀남이를 둘러싸고 보답한층더 평화스러운사랑속에잠겻든바 우숨의꼿춤이상 그들의 주위에서 부부애는물론 부성애 모성애의 향기를 풍기고잇섯든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러한실이한때의꿈과가티 사라짐에딸하 심술꾸러기 운명의신에게 번롱되비도다『산이문허질지언정 설마 내남편의 마음이야…』하고미덧든 그사나이의마음은 옥거름과가티 끼지고할게되엿다 따라서원이라사나이는 생전사랑해서 밧드러주어야만될안해자기를요리꾀하고 조리꾀혀서 사업자금(?)을 엇는다는 명목으로 사년전에 강원도 회양(淮陽)에잇는 영춘관(迎春館)에다가 일백오십원이라는 돈을받고 팔게되엿든것이다

이리하여 어째까지도 남의 한안해요 어머니이든 홍명옥은 대번에 창녀로 구을러 떠러지게되여 못사나이의 환심을 사지안흐면 안되게되엿는데 여기서 그에게 한가지 한늘에 사모치는 원한의꿋을 박어준것은 눈에 너허도 아프지안흘만큼 귀여운아들 귀남이를 남편 원창수가 누구에게 마러이르게한다고 빙자하고 그길로 테리고 종적을 숨기고만것이다

안해를 물건과가티 파러버리고 자최를 사라치고만 원창수는 그후사년이라는 긴세월이흘러가도록 한번도 음신을 전치안흘뿐아니라 자기는 지난오월이십오일에는 예!제!로굴르고굴러서 전기신고산 암강춘으로 넘어오게 되엿스나 그래도 조선안에서 어데고 가까운 곳에 잇스리라고 미덧든 남편과 아들은 뜻밧게도 현재 일본내지 어떤지방에 잇다는것이 알게되자 그만 그는 싸히고 싸힌 자식그리운정이 일시에 폭발하며 그가리 실진하다시피 본보신고산지국에를 차저와 혈서로 하소연한것으로 이 정경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공치게생각하고 눈물을 먹으며 빗다는 그의 모성애를 기리고잇다。

寫眞은 洪命玉

라디오

三十一日(日)

◇午後六時 (東)名作物語「里見八犬傳」 AKコドモ會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五種疑惑 藤田 老

◇同七時三〇分 傀儡琴倂唱 一、唱劇調 二、唱劇 鼓手 池順九 姜(?)紅

◇同八時 라디오드라마=懸賞當選作品發表= 디오드라마當選作品 "傑作"一篇 —田宮成作— 配役 어머니……白銀姬 金哲氏(아들)……宋在善 愛淑(딸)……朴生道 朴英鎬(哲氏의친구)……孟晩植 田愛順(愛淑의동무)……鄭惠淑

◇同八時卅分 雜歌 演出 申左人 同會 効果 宋(?) 雜歌外 一、楚漢歌 二、平壤念佛 三、자진念佛 四、자진배따라기 五、령가 鄭(?)善 金泰運

◇同九時 四重奏 四重奏曲K8五一四番 O長調 第一樂章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티노-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 第一바이올린 金載鎬 第二바이올린 安聖敎 비올라 崔虎永 첼로 本宮伸光

◇同十時 朝鮮交換放送 (滿洲로부터)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名作物語

◇同六時二五分 産業ニュス

◇同七時三〇分 (大)ニュス演藝

◇同八時 (東)長唄

◇同八時三〇分 歌謠曲

◇八時五〇分 (大)浪花節

一日(月)

同六時 單簫獨唱 秦貞姬 피아노伴奏 秦貴鳳

◇同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許 然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農業의特異性 總督府事務官 姜元秀

◇同八時 音律 集山會相 玄琴 李彦和 洋琴李承燁 奚琴 琴 池龍九 短簫崔壽成 細笛鄭載福 杖鼓李章寬

◇同八時四〇分 (大)歌劇 매담, 버터플라이 三浦環

第一放送

◇同六時(東)童曲

◇同六時二五分 (秋)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三大學府

◇同八時四〇分 (大) 歌劇 三浦環

長篇小說 그의自叙傳【41】
長白山人作 熊超畵

교원생활(一)

나는 이러한 중에서 중학교를 마초고 고향 K라는 학교의 교사로 연빙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왓다。중학교단을 마초고 조선으로 돌아온것은 늙은 조부때문이란것도 한 이유가 되지마는 그 밧게도 또 두가지 이유가 잇엇다。하나는 당시 기개잇나고 자처하는 청년들은 이때가 안한하게 공부하고 앉엇을 때가 아니라、고국에 돌아가서 민중을 각성시켜야할 때라는 비분강개한 생각을 가젓엇다。그해가 바로 한방이 되든 경술년이엇다면 상상될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 동경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를 고만두고 돌아온 이유는、『공부는 더 해서 무엇하느냐。나는 벌서 최고지식에 달한것이아니냐。나는 벌서 인생관과 우주관을 완전히 가진것이아니냐』이엇다。마치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인생을 다 알고난 사람과 가튼、초연한듯、인생에 피곤한듯한 그러한 태도를 나는가지고잇엇다。그래서 인제는 내가 무엇을 배울 때가 아니오 남을 가르칠 때라고 자임하엿다。이러한 건방진 생각을 품고열아홉을 먹은 나는 고향으로돌아온것이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때에는 조선서는 인심이 물끓듯하엿다 이등공작 암살사건、헤아평화회의 사건、양위사건、군대해산사건 등등。그리고 민간에는 학교들을 세우고 연설들을 하고 대운동회를하고 비밀결사들이 생기고。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아니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나는 서울을 들러서 며칠을 머물면서 지사들이 법석하는구경도 하고 또 어떤 대신에게서 원으로 가라는 권도 받아보고 그리고는 그 때에 개통되지 얼마안된 기차를 타고고향으로 갓다。

정거장에는 수백명 학생과 직원이 이러은 새 교사를 맞노라고 나와서 정렬하고 잇엇다。

이 학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합한 학교로서 상급생중에는 내게 아버지뻘이나 되는 나이를 먹은 사람까지 잇엇고、중등과의 거의 반수이상이 나보다 나이 많은 이들이엇다。

이러한 학생들이 실리나 되는 정거장까지 나와서 맞는것을 나는 별로 고맙게도、더구나 미안하게도 생각지아니하고 도로혀 당연한것처럼 생각하엿고、한술 더 떠서、『나 같은 장한 사람이 너의들의 선생으로 오는두나』하는 생각까지 잇엇다。나는 의기양양하게、랄모로、경례하는 학생들의 학렬 앞으로 걸어 지나가서 백발이 성성한 N이라는 교주와 초면인사를 하엿다。그리고는 N의 소개로 늙은、젊은 여러 선생과 인사를 하고 학생들의 선두에 서서 학교로 들어갓다。

학교에서는 소를 잡고 여러가지 음식을 여투고 이 애숭이 선생의 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엇다。인제 겨오 중학교를 졸업한 열아홉살 된 아이인 나를 N교주이하로 대소 직원들이 끔직이 대접을하엿다。다만 학교 경비가 곤난해서 월급이 없는것만은 어찌할수없는 일이엇다。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한 생각을 가질줄을 몰랐다。나같은 큰인물이 이런 시골 학교에 온것이 이 학교와 및 N교주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큰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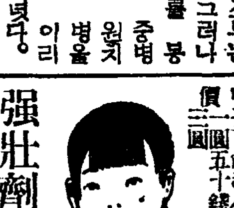
내가 이 학교에 취임한지 며칠이 못하야 내 늙은 조부는 병이 위중하게 되엇다。그러나 나는 남보고는 늙은조부를 봉양하려 왓노라고 하면서 중병든 조부의 곁에 잇기를 원치아니하엿다。나는 조부의 병을 핑게로 학교를 쉬이고는 이리저리로 술을 먹고 돌아다녓다。어렷슬적 친구들이 모도 벌서 술군들이 되어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라고 간데마다 술을사주엇다。

이러케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하로저녁은 몹특 앓는조부가 마음에 켕겻다。나는 친구가 붙드는것도 뿌리치고 밤시길을 육십리가 걸어서 조부가 앓고누은 곳으로 달려왓다 닭이 울엇다。대문밖에 나섯던 내 당숙모가、

『너 인제 오느냐。큰 아버님이 돌아가섯다。너를 기다리다 못해서 아버님이 눈을 감기섯고나。석아、석아、하고 두번이나 부르시고 운명을 하섯서』

하엿다。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갓다。조부는 자는드시 반드시 누어잇섯다。그 곁에는 종조부가 혼자 앉어잇섯다。남봉난 당숙들은 어디 가고 없는 모양이오 그의 운명을본이는 오직 그아오와 질부 두사람뿐이엇던 모양이다。


强壯劑 世界에第一가는生殖器强大藥 一劑三圓二劑五圓半 其他梅毒淋疾藥麻雀時計寶石等의目錄請求次第無代進呈 安東縣四番通九ノ二 五行公司 振替京城一二〇八一

早〇止 絶對無効時返金합니다! 任意로射精防止藥! 中國皇家秘傳早期防止藥 價 一圓 三圓 五十錢

네가네가내사랑 폴리도-루레코-드 19385

山羊分讓 瑞西直輸入種 種畜 自家用 京城東小門外(コルフ場前) 山羊乳配達 明本牧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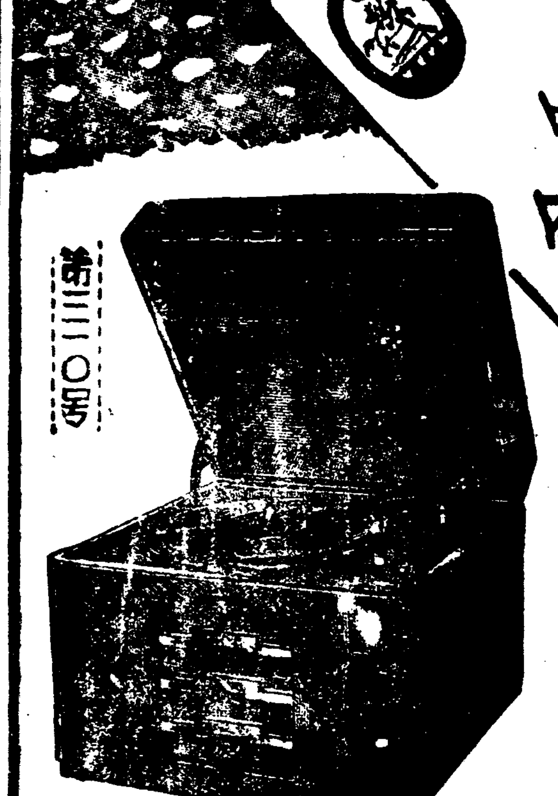
朝報案內

集金 係募集、廿五才迄希望者ハ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但シ保證金參百圓及ビ市內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面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テ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老少를勿論하고 陽氣업서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 가진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到着하얏습니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內容說明書請求하시면無料進呈함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々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로두고하는말
朝鮮釜山府草梁町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社員募集
一、資格—中等學校以上의學校를 卒業하고 銀行、會社、金融組合方面의經驗이有한분(特히計算方面에經驗이有한분)
二、事務取扱—會計及帳簿記帳
三、履歷書提出—前次資格에該當하는분은 本社庶務係로自筆履歷書『寫眞添付』를二月五日까지提出할事(履歷書는返還치안이함)(但市內在住者로確實한保證人을要함)
京城鐘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急告我全州李氏瑞原君子孫
京城府上道町(舊始興郡東面金佛庵)에在한瑞原君以下各墓所在地林野賣却됨에對하야多數宗親의要望으로緊急報告할事項이有하옵기本月七日(日曜)午前十時京城府太平通府民館에서宗中會를開催하오니右瑞原君子孫인僉宗은屆期出席하시믈仰要(但代理인이有한分은其委任狀과自身의實印을必히携帶하실일)
昭和十二年二月一日 李起鋧外十一人一同 白


레코-드와 蓄音器는 콜럼비아
新春歌謠曲의巨作!! 新譜 きがは便館
待望의電蓄完成!!
斯界驚異의콜럼비아新電氣蓄音器
家庭用에!宣傳用에!
音量・音質共完璧
定價 ₩135.
第三二〇號

團成社
眞夜中の酒場 高田稔主演 新興特作映畵
運轉手武勇傳 爆笑痛快篇、깨그니作品中白眉 젬스깨그니主演
世界를敵으로삼고 世界廿七個國을對敵하야獨逸은엇더케싸왓든가?九百萬精銳의不撓不屈의英雄的精神! ◆와너超特作映畵
男裝、男子縱制 近日封切 —(次週封切)— 豪快男一代記

東洋劇場
一日부터五日間 每日三回 十時半 一時半 六時卅分
世界를敵으로삼고 ◆鐵血의나치스獨逸의國民的映畵 獨逸超大作 男裝일레른少佐軍事指導

優美館
一月二十八日부터 悲劇「흘너간氣女」四幕 劇團 青春座公演第五週 朴英鎬 作
人生의무상함을象徵하는現代의美貌를띄인薄命한氣女의一生記!過渡期男女들의눈물겨운이야기는새삼스럽게도우리들을울게만할것입니다。朝鮮劇界의俊才인劇作家朴英鎬씨가오래동안沈默을직히다가이번青春座公演을機會에特別提供하는傑作입니다。
喜劇 오!너의일홈은女子니라 一幕 南宮春 作
女子되신여러분!女子란女子때문에女子요그러기때문에女子라합니다、이演劇內容이미리말슴하지안으나보시면아실러니、女子가웟女子이지옷지만말고보시시요!
次週特別豫告◎李雲芳作『漢江물은푸르것만』林仙圭作『잇지못할사람들』
天空快速王 三篇 一月三十一日부터超特大映畵 有社超特作全發聲大活劇 레이메이러-氏大作品!
警察大都會 파라마운트超特作 須磨の仇浪
萬花飛龍劍 大都映畵特作時代大劇 阪東妻三郞

四十八萬名 間島移住同胞

現狀의 이모저모

回顧하면 모다 血淚의 歷史 少康이라면 至今부터

(一)過去

現在의 間島는 滿洲帝國 領土의 一部이다 明治四十二年 日支間의 間島協約도 지금에 와서는 史上의 紙面을 차지할 時效는 간곳이 없다

그러나 千餘年來로 이땅의 開拓者 朝鮮民族의 存在는 依然히 健在하지 아니한가! 滿洲平原에서 雄飛勇躍하던 高句麗 渤海로부터 李朝時代에 亘한 往古의 因緣기픈 歷史는 喫嗽할 것 업거니와 우리 朝鮮民族이 좀게 間島를 가르켜 이곳의 先驅者 또는 開拓者로서의 가진 風霜을 經過한 것은 어찌 敢히 한입으로서 다 할수 잇스리오

近例를 드러 張作霖 張學良의 前醜한 誅求虐待는 天과 神이 共怒할 것이엇고 中國人 地主의 無慈한 搾取며 山野를 橫行하는 馬賊匪徒의 掠奪等 暴虐하든 일은 在間四十八萬 同胞의 머리에서 아직도 그 記憶이 儼然하다

그뿐이랴 所謂 甲子年 大凶은 在留同胞로 하야금 飢餓死線을 것게 하고야 만 일도 잇섯다 다시 더 나아가서 悲絶慘絶을 極하야 뜻 비린내를 끼치든 滿洲事變 以後의 反滿軍의 迫害는 아직도 꾸꾸 - 소름 수이지 안흔채 잇다

이 橫暴로 말미암음 同胞의 被害를 나타난 數字로 보인다면 間島五縣에 三六、三九五戶 人口로 二一九、六五七人으로서 當時 總人口의 約四割이란 多數를 占하엿다

그러나 同胞兄弟는 이와 가튼 萬難과 犧牲을 當하면서도 隱忍自重하야 粒粒辛苦하면서 土人과 어깨를 가티하야 生命財産을 九死一生으로 保存해 가면서 開拓한 것이 今日의 良田沃土! 全間島 五縣 三〇〇、三三三陌(하말)의 旣耕地이다

이것이야 말로 同胞兄弟의 『눈물』과 『땀』의 結晶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리하야 危急한 境遇는 得已 故國을 차저 드러가기도 하엿스며 必然的 情勢로 內地同胞는 先驅兄弟를 차저 間島로 移住하고 잇섯다

이제 滿洲事變 前年인 昭和五年度로부터 昭和十年度까지의 同胞移住와 歸還은 얼마나 되엿는가 나타난 數字로 보면 다음과 갓다

年度	移住	歸還
昭和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一、三〇〇

이것을 暫間紹介하고십다 移住動機는 어떠한 方式으로 하며 우리同胞兄弟는 어떠케 살게되나

間島의 奧地에는 아직도 點點이 殘餘反滿分子가 流動하면서 人民을 脅迫하고 잇슴으로 村落은 不得已 武力과 集團이 아니면 防禦하기 困難한 形便이다

여기에서 發案된 것이 集團部落形成이니 朝鮮總督府에서는 昭和八年度부터 同十年度까지의 三個年繼續事業으로 全間島內에 二十八個所를 建設하야 同胞를 移住케하엿스니 收容된 同胞戶數는 다음과 갓다

昭和八年度	九個所	[illegible]戶
同 九年度	一五個所	一、[illegible]戶
同 十年度	四個所	[illegible]戶

間島省에서는 五個年繼續事業으로 昭和九年度(康德元年)부터 着手하야 昭和十一年度末로 三次까지 設置完成하엿다 十九個所가 남아잇다 한다

間島省經營集團部落

(旣設部落)

設置年度	部落數	收容戶數
昭和九年度	二一個所	[illegible]戶
同 十年度	二五個所	[illegible]戶
同十一年度	三〇個所	[illegible]戶

(設置豫定部落)

昭和十二年度	一〇個所	一、〇〇〇戶
同十三年度	九個所	一、〇〇〇戶

이集團部落住民은 約八割이 同胞이고 (和龍縣과 가튼곳은 同胞뿐이지만) 其他가 滿洲人이다

部落은 百戶內外를 標準單位로하야 周圍에 土壁을 築造한 後 中央에 部落事務所 學校 自衛團 倉庫等의 共同建物이 잇게되고 土壁正門과 四隅에는 砲臺를 築造하야 밤이면은 自衛團으로서 守備를 보게되여잇다

部落의 行政은 部落長이 擔任하고 部落의 警備는 自衛團의 武力으로서 責任지고잇다

(二)現狀

滿洲建國 以後 時勢도 나날이 平定되는 모양이어니와 身元도 滿洲國의 確保를 밧게되니 最近와서는 朝鮮內地로서의 移住가 激增하야 가게되며 同時에 滿洲國으로서는 國土開發을 爲한 政策上으로서 來住를 勸奬하고잇스니 間島만은 歷史上으로 因緣이 기픈 우리同胞兄弟를 移住

이와 가티하야 間島는 同胞의 居住處가 되는 同時 十年內外로 間島에만 百萬同胞가 在住하게 되엿스니 이것은 朝鮮總督府와 滿洲國의 協議를 거처 鮮滿拓殖會社가 昭和十二年度부터 十五個年計劃으로 間島省을 中心으로 八十五萬의 同胞를 移住시키기로 決定된 것이 確實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策으로서의 朝鮮同胞를 留意한 集團部落設이 過然 間島에서 理想的 存在가 되며 우리同胞의 第二故鄕이 實現될가는 아직도 그 斷定이 時日을 要하지 아니하는가 한다

◇人口

間島五縣의 總人口는 六四五、四六八人인데 其中 同胞가 四八〇、九〇二人 卽 約八割의 大多數를 占領하고 잇다 特히 和龍縣가튼 곳은 總人口 一一七、七六二人中 九七%가 同胞로서 間島에서 特殊縣이라고 볼수밧게 업다

이제 昭和十一年三月末 間島省調査 人民統計를 보면 다음과 갓다

縣別	朝鮮人	日本內地人	滿洲人
延吉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汪淸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琿春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和龍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圖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年度別 同胞의 增加를 보면 다음과 가튼데 事變前年인 昭和五年度와 最近三年間의 現狀은 다음과 갓다

◇生業

	朝鮮人	全人口
昭和五年末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末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末	[illegible]	[illegible]
十一年三月末	[illegible]	[illegible]

在間同胞 四十八萬中 八割以上이 農民이고 殘餘二割이 商工業勞働者 官公吏等이다 農業은 其同胞經濟의 中樞이요 同胞生活의 根本이다 그러나 그 農民은 多數 今日의 窮境을 버서나지 못하엿다 더욱이 事變前後의 治安과 惡化 耕地農村은 荒廢에 도라가고 同胞農民은 比較的 治安이 良好한 都市에 逃亂하여 數年間 休農타가 昭和九年以來로 凶作이 거듭하야 農村經濟는 말할수업시 되엿거니와 農村의 購買力으로 維持되던 都市經濟도 極度困迫한바 잇섯다

그러나 지난해만은 稀有의 大豐이라 農村都市를 莫論하고 多少活氣를 보인듯하엿스나 幾年來의 凶作影響은 아직도 將來幾年을 持續할는지 斷言키 困難하다 이제 同胞兄弟의 손으로 所有한 土地는 얼마나 되며 所有한 土地는 얼마나 되는가 比較하여보면 다음과 가튼 數字를 볼 수잇다

	可耕地	旣耕地	未耕地
所有土地	五二一、八四〇	三九三、六八三	三九二、[illegible]
朝鮮人	滿洲人	日本內地人	
二二九、七七九	二三〇、[illegible]	二、四〇一	

(以上 單位晌)

◇教育狀況

教育機關	經營者	學校數	男	女	計
普通學校	咸鏡北道	五	二、四〇八	一、九二九	四、三三七
	朝鮮人民會	一三	六、六七五	一、七七七	八、四五二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私立學校	朝鮮人民會	二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基督教會	一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天主教會	一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村、文廟、曹洞、侍天教會	一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一八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書堂		一	一二五	一八九	二一四
幼稚園		二	一三九	一一九	二五八
中等學校	朝鮮人民會、基督教、天主教會	二	二二九	一〇三	三三二
	光明學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加奈陀宣教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私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教育

元來在間同胞의 教育狀은 朝鮮內地의 그것보다 못하지아니하야 事變前까지 各地에는 學校와 書堂等이 坂竹의 勢로 興起하엿섯스나 事變後부터는 治安經濟等의 混亂으로 因하야 此等村教育機關은 沒落에 陷하고말앗섯다

現在 朝鮮咸北道分校인 普通學校其他 私立學校狀況은 別表와 가거니와 總學齡兒童數는 一一六、四六九人인데 現在就學兒童은 四二、九五六名 卽 一割七分에 不過하다 이 文盲退治에는 크게 關心할問題가 될 것이다

그리고 別表의 私立中等學校 二十餘個所라는것은 龍井의 大成, 東興, 恩眞校이니 이것은 朝鮮內地와 各派에 自立된 私立中學校로 基金이 업는것이며 將來 校運을 樂觀할 수업다고 보는바이다

四十八萬 同胞의 子女教育을 認識하는바엇다면 朝鮮內地의 教育學校後援만이 當面問題가 아닐것이고 머리를 돌니어 此兩校의 形便도 생각해줄情勢는업는가?

마지막으로 在間同胞子弟教育問題는 國際的, 又는 政治的으로 解決을 기다리게되는것이니 間島는 行政方面과 歷史的關係도 考察을 要하야 一層複雜性을 內包하고 잇다고 본다

▲...困難한點

가、金融에 對하야

間島에서 金融機關으로는 滿洲中銀支店 朝銀支店 東拓支店 金融會等이 잇는데 一般農民金融機關으로 活動하고 잇는 것은 金融會라 하겠다

農民同胞는 春耕期에 不得已 農糧을 이 機關에서 貸出하야 充當하고 잇서서 農村의 九割以上이 連帶負債를 가지고 잇는 現狀이니 그들의 生活을 짐작하고 도남는다

또 滿洲地籍農側은 大概地主及個人과 去來하는 모양인데 그 金利가 最高 月二割 最低 一分 普通 四分內外 高率이다

朝鮮內의 有産有志는 特別히 此點에 留意進出하야 同胞農民을 爲한 活動이 잇서야 되리라고 잇는 바이다

나、農民의 衛生

在留農民同胞의 衛生에 對한 觀念이 薄弱하야 압호로 그 改善을 要할 것은 말할것 업거니와 그中에서 時急히 改善必要가 잇는 것은 牛馬廐와 廚房이 連接하야 牛畜과 同居하는 것이다 우리

移住同胞의 손으로 開拓된 龍井市街

(三)懇望

이 바게 困難한 事情은 許多할 것이며 受乳直後라 自然히 精神的으로도 弛緩해서 모든 方面으로 消極的으로 움즉이고 잇는 傾向이 보이지 안는가 한다

여기에서 同胞大衆을 指導할만한 中堅人物을 기다리는 것이니 朝鮮內地의 諸賢은 在留同胞를 爲하야 精神과 物質方面으로 格別한 留意와 實行이 잇기를 四十八萬兄弟가 懇願하는 바이라 고 밋는다

(延吉支局 一記者)

奉天在留同胞의 現狀은 果如何?

현하 농촌의 피폐상이 그 극에 달함에 따라 정드린 고토를 등지고 북으로는 만주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 로동시장으로 남북으로 몰리는 것이 현하우리겨레의 현상이어니 고토에 남어잇는 동포들로서는 새해를 당할때마다 해외에 잇는 우리 수만흔 동포의 안위가 대단히 궁금할것이다 이에 귀자는 간단하나마 봉천에 재류하는 동포의 현상을 드려서 새해에 고국동포에게 알리랴고한다 굶주린 배를 부어안고 고향을 떠나 처자의 손목을 이끌고 남부녀대로 압록강 푸른물결에 눈물을 뿌리고 만주로 온 그네들은 오늘에 잇서서과연 생활문제를 해결하엿느냐하면 예상이상으로 참담한 현상이다

하로에도 수백명식 봉천역에 나리는 그들은 오늘에 과연 무엇으로서 생활을 지탕하여가느냐하면 정확한 수자는 엇기가 매우 어려운일인데 물론 명하나마 총령사관의 통계표에 의할수박게 업다

◇人口動態

봉천이란 곳은 작금을 물론하고 만주에 잇서서 제일큰 도시엿다 만주사변 이후 인구는 급랭 포로느러서 오늘에는 륙십만이란 인구를 포용하고잇는 만주유일의 상공업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약진도상에 잇는 국제적 대도시이다

이 어마어마하고도 으리으리한 복잡하기 짝이 업는 대도회에 거주하는 우리동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통칭삼만 이라고 한다 봉천시 서탑(西塔)과 십간방(十間房)에는 우리동포의 거리로 되여잇고 기타 성내와 신시가에 거주하는 자는 동떠러 이만인이 잇고 그 밧게는 전부가 봉천부근 농촌에 산재하야 잇다 시가지에 거주하는 동포는 대부분이 소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그리 치안코면 일일 로동으로 그날 그날의 생계를 해나아간다 부근 농촌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그 전부 업에 종사하는데 본래적 수공권으로 온 그네들인 만큼 생활이 말할수업시 빈궁한 현상이다

봉천총령사관의 통계표에 의하면 우에와 갓거니와 이 통계에서 빠진 수가 약 만명은 되리라고본다 이제 이것을 다시 직업별로 보면 농업이 만명이나 되고 기타는 관공리와 상공업 료리업이 수위를 점령하고 그밧게는 전부가 로동시장의 품파리군이다

市名	戶數	男	女	計
奉天市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瀋陽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業과 生活

이상에서 말한바와 가티 봉천 시가지에 거주하는 동포는 대부분이 소규모의 상공업을 경영하고 잇스나 생산적으로는 이러타고 드러말할것이 별로히 업는 것이 매우 섭섭한 일이다 부근농촌에 거주하는 동포는 거이 전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잇는데 그 대수가 그동안 영리회사인 동만(東滿)척식에 소작인이엿스나 아권업(東亞勸業)의 소작인이엿스니 만흠 그 전부가 적지 안흔 부채를 지고잇다 그럼으로 그날 여름동안 피땀을 흘리며 지여 노흔 곡식은 추수하야 그 전부를 회사의 빗으로 바치고 겨울에는 제승(製繩)제입(製叺)을 하야 연명해 가는것이다 그러다가 춘경기를 당하면 또 금융회(金融會)에서 빗을 어더야 되의로 채무는 년년히 늘어갈 뿐이다 작년 十월부터는 선만척식(鮮滿拓殖)으로 옴겨감에따라 소작인의 대우가 전날의 동아권업시대와는 다소 나흘가하엿스나 결국에 잇서서 소작인의 직접 관계자인 현장에잇는 농장사무원들의 전부가 동아권업의 그 인물들임으로 권업이라 척식이라 일홈은 다를지언정 사실에 잇서서는 업치나 덥치나 곤난한것은 우리동포 농민뿐이다 이제 그들의 생업을 조사하여보면 아래와 갓다

副業生産高

水田作付面積	租收穫高	畑作面積	粧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叺 [illegible]枚 繩 [illegible]斤 瓶 [illegible]

(北市場)보교두곳을 필두로 교조합 경영의 보통학교가 일곱군데나 되고 민간측경영이 한곳잇다

만철의경영학교는 이러저러한 지문제에는 봉착하지안헛스나회교조합으로서 경영하는 일곱곳의 학교는 말할수업시 빈약한 현상이다 교원봉급지출이 문제가 되고 심지어 신탄(新炭)료까지문제가 되다니 참으로 딱한일이다 조선총독부로부터 오든보조금은 이만원에서 절반이 나감소되엿다고하며 경영이 아프로매

◇敎育及宗敎

수백만이 살고잇는 만주에 아직도 중등교육기관이 업스니 시무엇이라고 말할수업다 봉천의 유지인사들이 작년에 발기한봉천고보(奉天高普)가 금춘에는 기어히 실현되리라고하나 몸시도 반가운 소식이다 하로밥비 봉천거리에 봉고(奉高)라는 모표를 단 학생들이 나타날때를 전부(?)가 시민과 한가지로 고대하는 바이다 이제 보통학교로는 만철(滿鐵)경영의 봉천보교와 부시장

우판관할것이다 그리고 민간측 경영으로 보합보(保合普)보교가 잇서서겨우 형식이나 가추고잇스며 몽천서탑교회의 경영으로유치원 보모양성을 목적하고 설립 되는 잇는 동천보모전습소(奉天保姆傳習所)가 잇서서 중등이상학년정도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잇다

校	數	教員	生徒數
普	敎	一〇	六五	二九三
幼稚園	二	四	一三四
保姆傳習所	一	三	一二
計	一三	七二	三三七六

종교는 기독교를 주로하고 불교가 잇는데 수자적으로 아려보면

名稱	信徒數
奉天西塔敎會(長老敎派)	一、七五〇
奉天聖潔敎會(聖潔敎派)	四二〇
奉天第二敎會(長老敎派)	三〇〇
奉天第三敎會(同)	二〇〇
附近基督敎	八〇〇
附近聖潔敎會	二〇〇
奉天佛敎布敎所	七〇〇
計	三、四七〇

◇衛生及其他

우에기록한바와가티 봉천에 거주하는 우리동포의현상이란 참당하기 꼬집는바어니와 더욱이 위생상으로보아서 넘우나 한심한 일이다 봉천시내에 거주하는이는 큰병원의신세라도 질수잇지만 부근농촌에는 오가황(吳家荒)에 병원이 하나잇슬뿐이다

수만흔 농민동포는 오늘에 잇서서 문명의 혜택도 그들에게는 불관언이 되고 마럿다 그리고 봉천서탑이나 십간방에 거주하는 동포의 위생이란 넘우나 비인간적이다 령사관이나 만주국으로서도 고려가잇기를 바라거니와 도시정화(淨化)는 별문제로하고라도 위선 거리에 대소변과 되글로하여 발을옴겨 노흘 수가업을뿐만아니라 비가오기만하면 거리에 홍수가 나서 교통이 두절될지경이니 여름철에는 생지옥이나 다름업는 현상이다

그리고 사회단체로는 그동안엣 민단체가 엿섯스나 당국으로부터 해산을 하고 또한 어절수업는 사정으로하야 자최를 감추고 현재에는 봉천조선청년회의 조선기자단이 잇서서 재봉동포의 지도역할에 당하고잇다 지면 관계로 아직이만하거니와 멀지 안허 봉천의 전모(全貌)가본지상을 통하야 나타날것을 약속하여둔다 - 꼿 -

(奉天支局 一記者)

大金横領犯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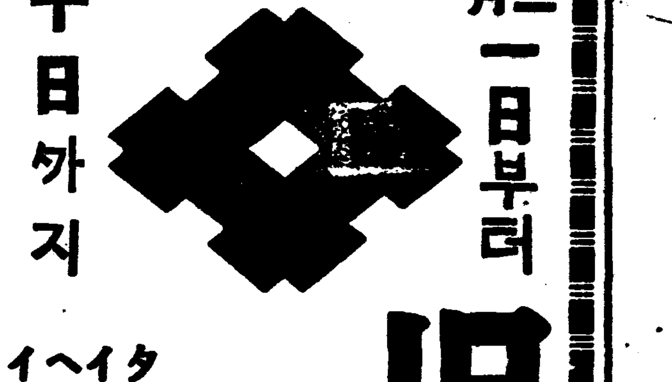
哈爾賓에서 逮捕

【平壤】 평양부내 신창리(新倉里) 과물 취급 전문점 보신공사(普信公司)고용인 리창범(李昌範)(三二)은 주인의 의복과 구두까지 절취하여 신으후 현금 천원을 바다가지고 작년 십이월 이십구일에 행방을 감추어 잇스므로 그동안 행방을 수사중이든바 합이빈(哈爾賓)에 잠복해 잇는 것을 발견하고 수배를 발하엿든바 이십구일 합이빈 령사관 경찰의 손에 체포되엿다는 통지가 잇스므로 평양서에서는 형사가 합이빈으로 가다 한다

李化三 獨白劇

畢竟無期延期

【平壤】 평양예술좌(藝術座)주최로 상설일거행하려든 리화삼(李化三) 독백극(獨白劇)은 간부들이 경속된 관계로 무기 연기하기로 되엿다



旧歲末謝恩大奉仕

洋服·雜貨·洋品·家具等其他贈答用品

イタ
ヘイ
テイ
クチ
オー
ケ
一

不用(古)레코-드 一枚 五十錢에 買戾함

但シ タイヘイ·テイチク·(K)레코-드 ムピア·ポリドール는 別)古레코-드로 二枚사시면各社製(ビクター·コロ 一枚五十錢式으로 買戾합니다

鮮內 優秀레코-드 特別大서-비쓰 宣傳大特賣 (一枚) 一圓 【六階】

紳士服…二階
婦人子供服…三階
洋品…一階
雜貨…一階
家具…五階
樂器…六階

地方으로브터 注文은 通信販賣部로

京城 三中井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綿打機 製繩機 製叺機 稻扱機

空氣銃 農具部 綿打機部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部品別)

專門製作特約店募集

綿打機 此機는新案特許品인데 한번두르면 三回式回轉되여 在來式보다 三倍以上打綿함

空氣銃 此發明品은 용접이無하고空氣作用으로 發射함으로反動이無하고도强力이有함으로百發百中이여서 果樹業者는絶對必要함

製繩機 農家의副業紙이 날로더해가는 此時의製繩이 잘되고 故障이 絶無한此機를 使用하시오

製叺機 此機는新考案改良品으로 精密한機械로製造하엿슴으로 堅固하고經快함

稻扱機 此機는 在來品의缺點을 改良하얏슴으로 實用的인 優秀天下一品

朝鮮黃海道載寧驛前通
合名會社 利善工場
電話 一〇九番
振替京城 一四七八六番

愛用謝恩舊歲末二重大景品付

大賣出···大急告(空籤업슴)

★賣出規定★

(一)賣出品 米國製크롬·正十八金懷中·瑞西製各種優秀品腕·懷中時計三萬個限

(二)賣出期間 昭和十二年一月二十日부터 昭和十二年二月末日까지

(三)景品券 下記賣用品中買上額五圓以上에 하야 景品券一枚式進呈함

(四)抽籤券 昭和十二年三月十八日同業組合立會下에 公正히 抽籤器로 抽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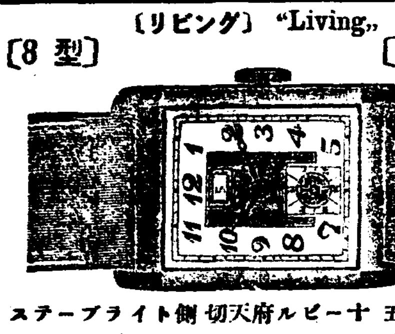
(五)當籤發表 昭和十二年四月一日付發行朝鮮日報紙上에 結果를 發表함

(六)景品送呈 昭和十二年四月十五日더부터 月末日까지 景品券과引換送呈함 同四

★景品內譯★

●一等(十本)……正十八金側懷中時計一個式
●二等(二十本)……코럼비포-타블蓄音器一台式
●三等(五十本)……舶來高級大名刺型寫眞器一台
●四等(五百本)……クローム側瑞西製腕卷一個式
●五等(二萬本)……샤-푸펜실一個式全部進呈

いつも正しい安心して買へるセイコーシャ時計を是非



〔リビング〕"Living." 〔8型〕 〔長角型〕

ステーブライト側 切天府ルビー十 五石入銀支

(アイ)……¥28.50 (アハ)……¥32.00
(アロ)……¥30.00 (アニ)……¥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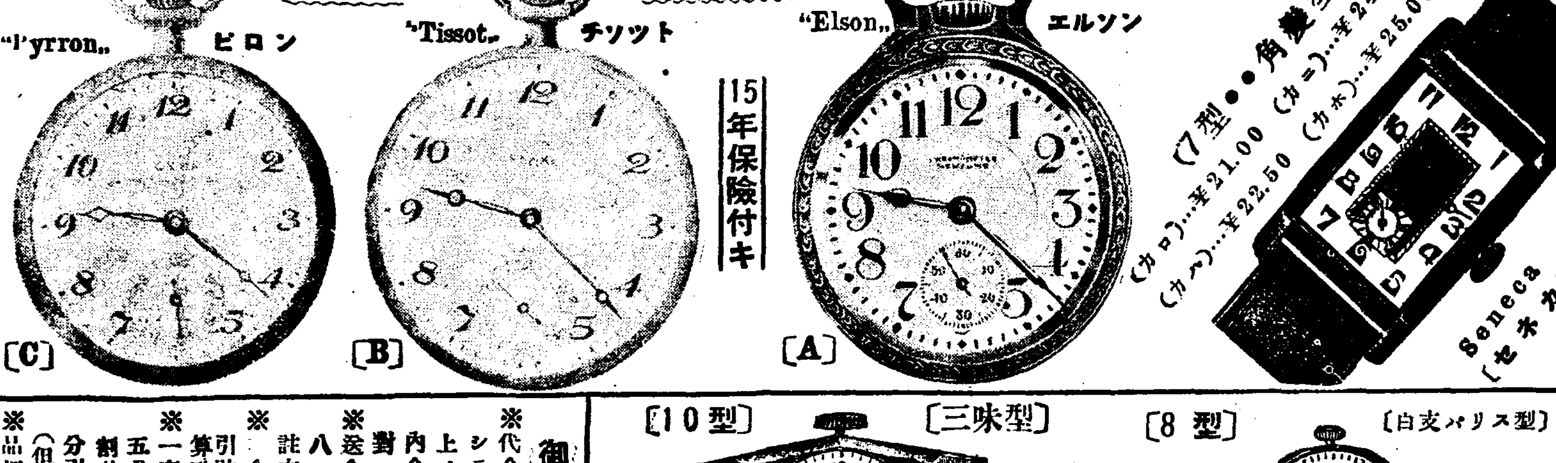
Ⓢ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振替東京八二四五一番

(電話落合長崎七一八番)

値段は下欄參照



"Pyrron." ピロン 〔C〕

"Tissot." チソツト 〔B〕

"Elson." エルソン 〔A〕

15年保險付キ

(7型··角變型) (カロ)…¥21.00 (カニ)…¥24.00 (カハ)…¥22.50 (カホ)…¥25.00

Seneca (セネカ)

御註文ニ際シ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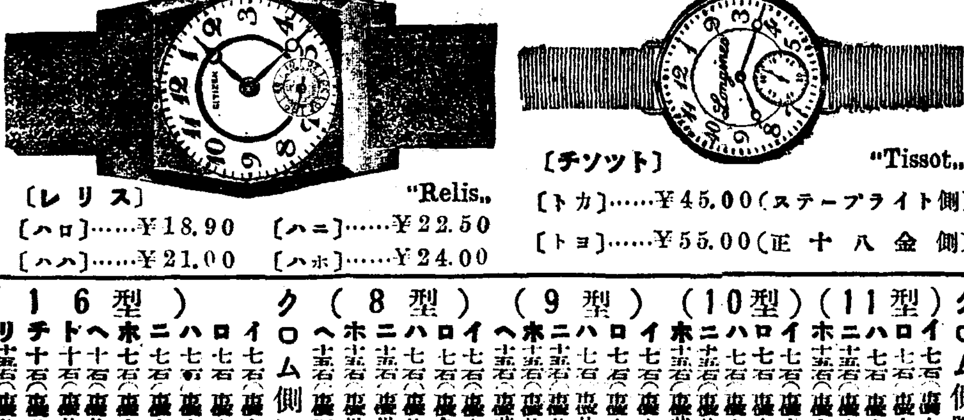
※代金引換註文ノ際ハ內金トシテ必ラズ註文高ノ三割以上ノ金額ヲ拂込ンデ下サイ內金ナキ代金引換註文ハ絕對ニ取扱ヒ致シマセン。

※送金ハ小爲替カ、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ニ拂込ンデ註文シテ下サイ。

※金註文ニハ送料不要、代引註文者ニ限リ四十錢ヲ加算致シマス

※一度ニ六個以上註文ノ際ハ五分引、一打以上ノ際ハ一割引五打以上ノ際ハ一割五分引致シマス(但シ五個以上ノ品ニ限ル)

※品切レナイ內ニオ早ク御註文ノ程願ヒマス。



〔10型〕 〔三味型〕 〔レリス〕 "Relis."

〔ハロ〕……¥18.90 〔ハニ〕……¥22.50
〔ハハ〕……¥21.00 〔ハホ〕……¥24.00

〔8型〕 〔白支パリス型〕 〔チソツト〕 "Tissot."

〔トカ〕……¥45.00(ステーブライト側)
〔トヨ〕……¥55.00(正十八金側)

クローム側腕卷 舶來革皮付 (11型)(10型)(9型)(8型) イ 七石 … [illegible]

クローム側懷中 クサリ·メタル付 (16型) イ … [illegible]

タバンシーマ クローム側懷中時計 クサリ·メタル付 (16型) イ … [illegible]

クローム瑞西最高級懷中 (16型)

Aエルソン實用懷中ロレット (16型) イ 十五石(裏三円)只ノ一八·〇〇 ロ 十五石(裏四十円)ノ二〇·〇〇

Bチソツト(切天府卷上式) ハ 十五石(裏六十二円)只ノ三五·五〇 ロ 十五石(裏七十円)ノ四八·〇〇

Cピロン(極薄手パリス片) イ 十五石(裏五十円)只ノ二一·〇〇 ロ 十五石(裏六十円)ノ二五·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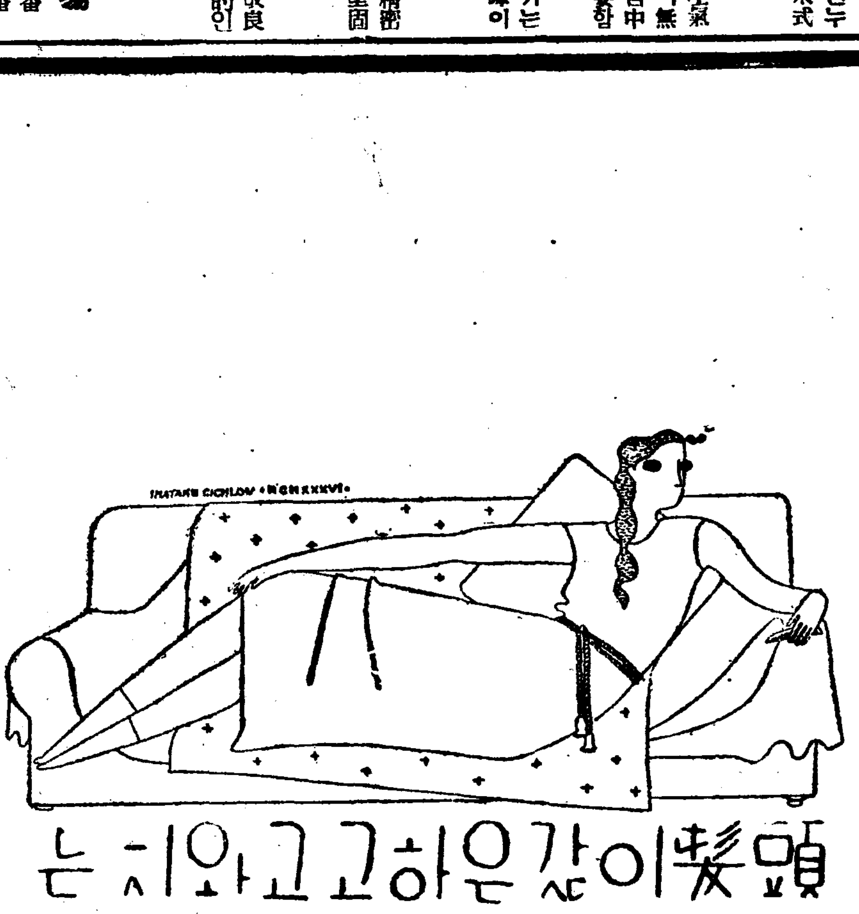
クローム側ウオルサム提 (米國製クサリ·メタル付) (16型) … [illegible]

十八金HK側腕卷皮付 (9型)(8型) … [illegible]

十八金HK側懷中時計 (16型) … [illegible]

正十八金側高級腕卷 (8型)(9型) … [illegible]

正18金側ウオルサム提 (16型) … [illegible]



ラランポマード

新富座 新富町 電本2 三六七

一月三十日부터毎日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均一

◇三大豪華版大封切!

◇파라마운트超特作 全發聲日本版! 희극 맥키시코G맨 一名(女侯)

◇파라마운트超特作 全發聲日本語解說版 하바三少將南極探險 바三少將及探險隊一行의記錄映畵

◇後藤映畵社超特作全發聲映畵 監督—加藤柳美氏

時代史劇 荒木又右衛門 全十卷 嵐寬壽郞氏

中央舘 永樂町 電本三〇一四

一日ヨリ三日マデ三日間限リ 階下席 十錢均一

大都現代劇部特作喜劇 佐久間妙子伴淳三郎主演

串差おでん 中篇後篇

大都時代部特作 大乘寺八郎、佐久間妙子主演

旅鴉一夜噺

毎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一 第二回六 第三回五三〇